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曹植 詩歌의 女性形象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渡 炆

2014 年 08 月



曹植 詩歌의 女性形象研究

指導教授 林 東 春

金 渡 炘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年 06 月

金渡炘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大學院

2014年 08月

A Study of Feminine Imagery in the Poetry of Cao-Zhi

Do-ky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Dongchun L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Dong-chun Lim, Prof.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序論	1
1. 研究概況과 研究目的	1
2. 研究範圍와 研究方法	2
II. 前代詩歌의 女性形象	4
1. 《詩經》	5
2. 《楚辭》	11
3. 古詩十九首	14
III. 前·後期 詩歌의 女性形象 特徵 比較分析	21
1. 前期의 詩歌	22
2. 後期의 詩歌	31
V. 女性形象의 內容分析	45
1. 美女의 形象	46
2. 棄婦(怨婦)의 形象	60
3. 思婦의 形象	71
VI. 結 論	79
參考 文獻	81

Abstract

Kim Do-kyung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im Dong-chun)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the good reputation on the literary works of CaoZhi, with their innovative styles and outstanding accomplishments, has handed down to posterity. The first literary circle was founded in Jianan(建安) era when writers became active in literary creation, in the vanishing trend of remaining anonymous, and it was a new beginning of the Chinese literature. That era, though dotted with unprecedented disorders and wars politically and socially, was considered a significant period that had a grave impact on the literary development of later years in the literary traits inherited.

During his short span of life, CaoZhi bequeathed 200 works in various genre including 80 pieces of Fu(賦) and plus prose, and he greatly influenced on the poetic development after Jianan era.

Among the most of his poems, he adopted a wide variety of feminine imagery depicting his own feeling. It is important to analyze how CaoZhi utilized those feminine images to represent his inner world of consciousness. Those feminine figures were natural beauties with full of elegant dignity and vividness as well as humanity.

CaoZhi drew an analogy between women and himself to represent the grief from the loss of love and to show pains of life through feminine images. The feminine imagery in the poetry of CaoZhi were mainly tragic but combined both inner and outer beauty together. They generally came to the end in tragedy without having opportunities to unfold their hopes and talents.

I. 序 論

1. 研究概況과 研究目的

中國文學史에 있어서 曹植의 文學作品은 새로운 모습과 뛰어난 성취로 후세의 주목을 받았다. 建安時期에는 중국 최초의 문단이 형성되었는데, 이전의 無名氏 중심에서 文人에 의한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인 中國文學史가 전개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政治的, 社會的으로 歷史上 유례없는 혼란과 전쟁으로 접철된 시기였으나, 文學 發展에 있어서 만큼은 前代의 文學氣風을 이어받아 後代 文學 發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詩經》, 《楚辭》, 漢代의 民間樂府를 기초로 현실적인 삶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詩歌의 體制를 사실상 완성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즉 4언, 《楚辭》체로부터 5언·7언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로 5언은 이미 형식의 완성을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文學的인 發展을 이룩한 중심에는 曹植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建安時期는 현실의 생활이 詩歌의 주요 소재였으며, 五言詩 위주였다. 政治적인 혼란으로 민생이 피폐하였고, 사상적으로는 혼돈 상태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시기의 詩歌에는 어지러웠던 사회 현실과 백성들의 생활상이 잘 반영되어 있고, 文人들의 울분과 걱정이 담겨져 있는 나뉠대로의 詩格을 형성하고 있다.

曹植은 짧은 생애동안 80여 수의 詩歌를 비롯하여 賦, 散文 등 다양한 장르에서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겼으며, 建安時期 이후 詩歌 발전에 있어 文學史的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文人이다. 근래 中國에서는 曹植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論文이나 각종 刊行物등을 포함하여 1400여 편에 이른다.

이에 반해서, 국내에서는 이 時期를 대표하는 文人인 建安七子에 비하여 曹植 詩歌에 대한 國內學位 論文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아영의 〈曹植詩研究〉¹⁾, 장유미의 〈曹植 後期詩 研究〉²⁾, 이익희의 〈曹植賦 연구〉³⁾, 김봉자의 〈曹植의

1) 이아영, <曹植詩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生涯와 作品研究》⁴⁾, 그리고 심삼용의 〈曹植 樂府詩 研究〉⁵⁾ 등이다. 국내에서의 학위 논문은 주로 曹植의 詩歌와 樂府詩 그리고 曹植의 문학 등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筆者는 曹植의 짧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노래한 詩歌들 중에서 女性을 소재삼아 자신의 심경을 묘사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曹植의 작품 중에서 각 女性들의 처지를 어떻게 形象化하여 다양하게 자신의 內面 心理世界를 표현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建安時期는 中國文學史에 있어서 “自覺時代”이며, 過渡期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時期의 文學은 《詩經》 이래로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또한 後代 唐. 宋 文學의 興盛을 가져오게 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曹植 또한 마찬가지로 그는 《詩經》의 우수한 傳統을 繼承, 發展시켜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로 새로운 문학사의 지평을 열어 中國 文學史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曹植의 詩歌를 살펴보는 것은 중국문학사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당시의 저명한 작가로는 三曹인 曹操, 曹丕, 曹植과 七子, 즉 陳琳, 王粲, 徐幹, 阮瑀, 應瑒, 劉楨, 孔融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당연 曹植이다. 따라서 建安文學을 研究하거나 “建安風骨”을 연구하고, 나아가 魏晉南北朝 文學의 발전과 특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曹植의 詩歌를 理解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2. 研究範圍와 研究方法

建安時期는 經學이 쇠하면서 반사적으로 사상적인 해방을 맞은 시기라고 볼

2) 강유미, 〈曹植 後期詩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 이익희, 〈曹植賦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 김봉자, 〈曹植의 生涯와 作品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 심삼용, 〈曹植 樂府詩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文人들은 대담하게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다수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曹植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작품 중에는 女性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상당수 볼 수 있다. 曹植의 작품 중에는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잘 묘사되어 있는 詩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에서 女性의 形象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다. 研究範圍는 詩歌에 나타난 女性의 形象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女性의 形象을 묘사한 대표적인 賦인 洛神賦도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다.

曹植의 前·後期 詩歌의 女性 形象 特徵의 比較分析을 통해 전·후반기 작품의 색깔 차이와 표현 방법 등이 그의 詩歌를 통해 情感의 변화요인과 더불어 작품 속에서 어떤 形象으로 묘사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女性 形象의 內容分析을 통해 美女의 形象, 棄婦의 形象, 思婦의 形象을 曹植의 生涯를 前·後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筆者는 研究범위를 美女의 形象, 棄婦의 形象, 思婦의 形象으로 한정하여 女性을 소재로 한 작품의 생성원인을 고찰해 보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曹植 詩歌 중에서 女性 形象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影響을 준 前代文學인 《詩經》이나 《楚辭》, 古詩十九首 등이 曹植의 창작활동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曹植의 작품 속에 나타난 女性에 대한 相異한 이미지를 심층 분석하고 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前代詩歌의 女性形象

建安時期 중국은 정치적으로 분열과 동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建安時期的 작가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생활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여실히 묘사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강개하면서도 처량하다(慷慨悲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⁶⁾

이 시기에는 사상적으로 혼돈의 상태였으며, 先秦 이후 없어졌던 諸子의 학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가 하면, 道·法·陰陽·墨·兵·縱橫家 등의 사상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建安의 文人들은 참혹한 전쟁과 사회 혼란의 사상적 체험과 민가를 바탕으로 한 현실을 五言詩로 노래하였다. 그래서 建安時期的 詩歌에는 어지러웠던 사회 현실과 백성들의 생활상이 잘 반영되어 있고, 文人들의 울분과 걱정이 담겨져 있는 나름대로의 詩格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文人들은 이러한 사회풍조에 편승하여 대담하게도 女性을 소재로 한 창작 활동을 시도하였으며, 曹植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두드러진 활약을 한 文人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상당한 부분이 女性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며 이러한 작품들은 섬세하고 풍부하게 女性의 形象을 묘사하고 있다.

《詩經》이나 《楚辭》, 兩漢의 樂府民歌, 古詩十九首등 前代文學 중에서 女性을 묘사한 걸작들은 曹植의 창작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⁷⁾ 離騷가 가장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두 가지 形象인 美人과 香草이다. 美人의 形象은 보통 비유로 해석되는데 군왕을 비유하거나 자신을 비유한 것들이다. 전자는 “惟草木之零落兮，恐美人之遲暮”， 후자는 “衆女嫉餘之娥眉兮，謠諑謂餘以善淫”。이다. 이로써 屈原은 작품의 대부분에서 자신을 버림받는 여인에 비유하여 정서를 나타내 표현하였으며, 情感的으로 우는 듯 호소하는 듯 하는 애절함을 잘 드러내었다. <離騷>중에 수많은 갖가지 향기로운 풀들은 향초가 되어 장식품을 만들어 미인의 의상을 더욱 더 풍부하게 만드는 동시에 香草의 이미지를 일종의 독립적인 상징물로 여겼다. 또한 예술적 표현수법에 있어서도 <離騷>의 낭만주의적 표

6)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31-32

7) 劉彥青, 〈詩經中的 香草美人〉, 欣州師範學院學報, 第4期, 2013

현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漢樂府, 古詩十九首의 현실주의적 정감표현의 기교를 발전시켜 나아가 神話나 說話를 빌어 虛構的 人物形象을 객관적인 사실묘사로 변화무쌍하고 생동감 있는 形象으로 자신의 정감을 토로하였다.

여기에서 여인의 形象과 장신구, 자태는 漢樂府의 <陌上桑>, <羽林郎>에서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羅敷”는 뽕잎을 따는 한 아낙네일 뿐이고, “胡姬”는 “垆女郎”으로 천성적인 미모와 우아한 자태는 있으며 고상한 기질과 높은 기개는 엿볼 수 없다.⁸⁾ <美女篇>에 등장한 미인은 시인의 화신이기에 시인의 고아한 인품과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雜詩 其四>에서 “南國佳人”의 形象을 黃節선생은 말하기를 “여기에서 南國은 江南을 가리키는 것으로 佳人을 吳王의 曹彪를 비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그는 文帝와 明帝에 의해 쉴 새 없이 封地가 바뀌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이동한 까닭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시인은 여인의 절세미모와 화려한 복장, 고귀한 기질을 극찬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나라에 대한 변치 않은 충심으로 비유하고 있다. 아름다운 여인이 혼기가 다 차도록 시집가지 못하는 불우한 形象을 마치 曹植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나타냄으로써 그의 능력과 재주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부질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슬픔과 애절함으로 묘사하고 있다.

1. 《詩經》

曹植의 詩歌는 《詩經》의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 《詩經》의 많은 구절을 본보기로 삼거나 직접적으로 원문을 그대로 인용, 혹은 비유를 통하여 詩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주 원용하였다. 이러한 것은 《詩經》이 曹植의 詩歌 창작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는 魏晉 시기 經學과 문학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詩經》 賦, 比, 興의 手法은 曹植의 女性을 소재로 한 詩歌에도 깊은 影響

8) 張蕾, <曹植婦女題材詩作鑑賞異說>, 河北師範大學學報, 第2期, 1992, p35

을 미쳤다.⁹⁾ 賦, 比, 興의 운용은 《詩經》의 가장 중요한 예술적 특징이다. 이것은 후에 중국 고대 詩歌創作의 기본 수법이 되었다. 賦는 가장 기초적인 표현 수법으로 詩歌 창작활동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棄婦篇>에 등장하는 여인의 버림받은 슬픔과 앞으로의 미래인생에 대한 걱정과 근심 등 일련의 행동이나 <七哀>에 등장하는 여자의 처량함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은 모두 賦의 형식을 빌어 서술하고 있다. 賦의 형식은 “容華若桃李” <雜詩 南國有佳人> 복숭아꽃 오얏꽃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여자 용모의 아름다움에 비유한 것이나, “君若清路塵, 妾若濁水泥.” <七哀>에서 먼지와 진흙을 비유하여 부부간의 이별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보인다. 興의 표현기법 또한 曹植이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曹植의 시문 중에서 興句는 자주 중심제재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¹⁰⁾ 예를 들면 <棄婦篇>에서 “石榴植前庭”로 시흥을 돋우고 石榴의 “丹華實不成”로 명확하게 여인이 자식이 없어 버림받은 주제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浮萍篇>에서 興句인 “浮萍寄清水, 隨風東西流”를 통하여 曹植은 당시 여인네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편의 총애 여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둘째로 《詩經》에서 <陳風 澤陂>중 시인이 사모하는 것은 바로 內的, 外的인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자로서 “有美一人, 碩大且儼”, “碩大”는 여자의 전신을形容하는 것으로, “儼”은 그 타고난 기질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는 제한된 언어로 풍만하면서 암전하고 단정한 여인의 形象을 스케치 해내고 있다.¹¹⁾

曹植은 <洛神賦>에서 “榮曜秋菊, 華茂春松” (빛나기는 가을 국화며, 화사하기는 봄 소나무네.) “習禮而明詩” (예절바르고 말을 잘하네.) 로 여자의 形象을 그려내고 있으며 <靜思賦>에서는 美女를 “紅顏曄而流光”, “性通暢以聰惠, 行嬾密而妍詳”로 묘사하고 있다.

<靜思賦> 12)

夫何美女之妖, 얼마나 美女가 우아하고 아름다운가!

9) 李隆勝, <試論曹植詩歌對《詩經》的繼承與發展>, 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版), 2012年, 第2期, p26

10) 張振龍 張曉慶, <從用典看曹植對《詩經》的接受及其文藝思想>, 信陽師範學院, 河南, 2008.5

11) 張曉慶, <曹植作品引《詩經》考論>, 宜賓學院學報, 第1期, 2008.

12) 이치수, 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82-83

紅顏曄而流光.	붉은 얼굴은 빛나며 광채가 흐르네.
卓特出而無匹,	특출하여 필적할 짝이 없고,
呈才好其莫當.	드러낸 재주는 뛰어나 당할 자가 없네.
性通暢以聰惠,	성격은 탁 트이고 총명하며 지혜롭고,
行嬾密而妍詳.	행동은 꼼꼼 하며 평온하네.
蔭高岑以翳日,	높은 봉우리는 그림자를 드리워 해를 가리고,
臨綠水之清流.	푸른 물을 마주하니 그 물결은 더 맑아지네.
秋風起于中林,	가을바람은 숲 속에서 일고,
離鳥鳴而相求.	무리를 잃은 새들은 서로를 찾네.
愁慘慘以增傷悲,	근심으로 번민함에 슬픔은 더해 가니,
予安能乎淹留.	내 어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으리오.

이처럼 양전한 女性像은 용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內的인 아름다움도 지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고결하고 기품 있는 기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曹植은 여성의 자태나 피부 같은 外的인 美를 자연사물에 비유하여 直觀的으로 여성의 모습들을 묘사해 내고 있는가 하면, 또한 간접적인 비유의 수법과 직접적인 비유의 수법으로 女性的 形상을 표현해 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화려한 아름다움의 정감을 審美的 觀點으로 접근하게 한다.

물론 《詩經》에서나 曹植의 작품 속에서나 여인의 “貌”와 “德”을 함께 시야에 포함시켰다. 《詩經》에서는 여인을 묘사함에 있어서 자주 動的인 면과 靜的인 면을 부각시켜 생동적이고 풍부한 形象을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曹植의 창작활동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¹³⁾

<衛風 碩人>에서 먼저 정적인 상태에서 그녀의 手, 膚, 頸, 齒, 額, 眉를 묘사하고 그런 후에 “巧笑倩兮, 美目盼兮” (어여쁜 웃음 보조개 짓고, 아리따운 눈동자 흑백이 선명하니)로 상황을 반전하여 마치 畫龍點睛하는 것처럼 곧바로 이 미인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듯한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忽焉縱體, 이내 홀연히 몸을 가벼이 움직이며

13) 歐陽竹, 〈論前代文學對曹植女性題材作品的影響〉, 衡陽師範學院中文系, 湖南 衡陽

以遨以嬉.	즐겁게 놀며 장난하네.
左倚采旄,	왼쪽으로 채색한 깃발에 의지하고,
右蔭桂旗.	오른쪽으로 계수나무 깃발로 가리네.
攘皓腕于神滸兮,	물가에 뽀얀 팔목을 드러내고.
采湍瀨之玄.	물살 급한 여울에서 영지를 따네.

曹植의 작품 세계의 美女는 靜과 動의 운용의 조화가 특히 돋보인다. <洛神賦>에서 洛神은 자태, 용모, 기품, 복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그의 움직임 또한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美女篇>에 등장하는 여인의 동작은 손동작에서 비롯되는데 “攘袖” 뽀얀을 따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시선은 그녀의 손으로 집중되며 점점 나아가 머리로, 머리에서 몸 전체로, 마지막에 운치 있는 기품으로 전개되며 우아한 거동과 뛰어난 미모의 여인 形象이 생동감 있게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曹植은 작품세계 속 女性美를 외적인 아름다움과 內的인 아름다움, 動的인 아름다움과 靜的인 아름다움으로 이루어냈고, 《詩經》 속에 나타난 女性美를 계승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詩經》의 “風雅” 정신은 曹植의 女性을 주제로 한 詩歌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¹⁴⁾ “風雅”정신이 가리키는 것은 《詩經》에 담겨진 현실에 대한 열정과 강렬한 정치적, 도덕적 의식이 진지하고 적극적인 인생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은 曹植의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의 영혼이라 할 수 있으며, 《詩經》에서 시작된 愛情, 思婦, 怨婦 등의 주제는 曹植의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愛情에 대한 집착은 진지하고 적극적인 일종의 표현의 추구이며 이러한 것들은 曹植의 <洛神賦>를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夜耿耿而不寐, 沾繁霜而至曙”(밤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 잠들지 못하고 짙은 서리에 젖어 새벽까지 이르네.) <詩經.周南.關雎>중 “悠哉悠哉, 輾轉反側”(잠 이룰 수 없는 길고 긴 밤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지새 읊니다.) 와의 정서가 너무도 비슷하다.

思婦, 怨婦의 作品은 曹植이 그 당시 女性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 문제에 대한

14) 張曉慶, <曹植作品引《詩經》考論>, 宜賓學院學報, 第1期, 2008, pp16-17

지대한 관심의 산물이며, 이러한 여인의 처지를 빌어 자신의 처지를 寄託하는 수법으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男女간의 情을 君臣간의 義를 상징하는 수법으로 정치적, 도덕적 의식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詩經》 중에는 버림받은 부녀자와 남편을 그리워하는 形象을 묘사한 내용이 대단히 많이 보인다. 이러한 부녀자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버림받기까지의 부녀자의 슬픔과 괴로운 심경을 중국 문학사상 가장 처음으로 詩歌를 통하여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¹⁵⁾ 이 점은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과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표출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詩經 君子于役>

君子于役，	임은 부역 나가고
不知其期。	돌아올 기약 없으니
曷至哉，	언제나 돌아오실까，
鷄栖于埘。	닭은 화에 오르고
日之夕矣，	날이 저무니，
羊牛下來。	양과 소도 내려왔구나.
君子于役，	임이 부역 갔으니
如之何勿思。	어찌 그림지 아니 하리오.
君子于役，	임은 부역 나가고
不日不月。	해도 달도 모르니
曷其有佸，	언제 다시 만날까，
鷄栖于桀。	닭은 화에 오르고
日之夕矣，	날이 저무니
羊牛下括。	소도 양도 돌아 왔는데
君子于役，	임이 부역 나가서
苟無饑渴。	굶주리거나 앓고 있을까.

15) 歐陽竹, <論前代文學對曹植女性題材作品的影響>, 衡陽師範學院中文系 .大衆文藝, p104

이 詩歌는 한 아낙네가 멀리 원정이나 負役을 떠난 남편을 그리면서 걱정과 연민을 노래하였다. 무거운 兵役과 負役은 당시 시대의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한 여인의 남편에 대한 기다림과 연민의 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석양의 옅은 황혼이 온 대지에 어둡으로 드리울 때면 한 아낙네가 외로이 홀로 먼 곳을 바라보며 양 무리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다.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둘러 앉아 식사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이 아낙네는 멀리 부역 나간 남편을 생각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한다. 이 젊은 아낙네의 근심과 걱정은 언제 끝이 날까? 우리는 이 아낙네의 서글픈 운명과 걱정에서 이러한 아픔을 가져다 준 통치계급에 대한 끝없는 한과 원망의 빛이 서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짙막한 詩歌는 대비의 수법을 이용하여 사물을 돋보이게 하는 절묘한 방법을 운용함으로써 예술적 기교가 상당히 높다. 황혼의 전형적인 분위기를 남편을 그리워하는 서글픈 아낙네에 빗대서 그 초조한 심정을 함께 융합시켜 극도로 선명한 形象을 만들어내고 있다.

棄婦와 思婦의 形象은 曹植의 작품 활동 이전에도 많은 시인들이 詩歌 창작활동에서 중요한 소재로 삼았으며, 建安時期의 시인들 중에서는 女性생활을 반영하는 詩歌를 즐겨 창작했다. 曹丕의 <燕歌行>, <寡婦>, 王粲의 <七哀>등이 이러한 작품의 예이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는 깊이나 예술 표현기법에 있어서 曹植은 이러한 작품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다. 曹植은 버림받은 여인의 고통과 애환을 열정적으로 동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표현하려 하였다. 曹植은 자신의 처지를 불우한 여인의 形象을 寄託의 방식으로 자신의 신세를 알리고 싶어했다.

曹植의 詩歌는 《詩經》을 인용하여 창작되었으며, 사실 《詩經》에 대한 일종의 문학적 해석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의 창작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¹⁶⁾ 비단 曹植뿐만 아니라 당시 詩壇에서 이러한 시경의 사상과 표현기법의 대량 移入으로 말미암아 文人들의 창작 활동에서 그 문학성은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비록 사상적 해방기를 맞이하기는 하였지만, 《詩經》의 經學思想은 여전히 소홀

16) 李隆勝, <試論曹植詩歌對《詩經》的繼承與發展>, 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版), 2012年, 第2期, p25

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經學은 시경의 창작 이래로 줄곧 정치적, 사회적인 중심사상이었기 때문에 經學의 색채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魏晉 시기에 와서는 이러한 經學사상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思想的, 文學的 방면에 있어서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詩經》은 經典으로서 經學의 색채와 관념이 文人들의 사상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曹植의 詩歌 창작활동에 있어서 前·後期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당시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중심사상으로 굳게 자리잡고 있었다.¹⁷⁾

曹植의 前期의 작품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기대를 서술한 작품이 많은 반면 後期작품에는 대부분 자신의 이러한 이상과 포부가 실현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뇌와 아픔을 서술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2. 《楚辭》

《楚辭》는 曹植이 女性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香草美人의 藝術的인 手法이 그 으뜸이라 할 것이다. 香草美人의 수법은 美女의 形象을 묘사함에 있어서 사회적 이상추구와 이성간의 만남에서 오는 실망감을 비유한 것으로써, 曹植 자신의 심경을 寄託의 수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曹植의 女性을 소재로 한 작품들 중 유난히 後期 작품에서 비유의 수법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曹植은 문학 창작활동을 하면서 屈原의 창작수법을 계승한 文人이라고 볼 수 있다. 屈原은 낭만주의 시조로서 香草美人 形象의 출현은 후대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시경 중에 등장하는 초목의 形象을 계승 발전 시켰다고 할 것이다.¹⁸⁾ 이는 楚나라의 풍속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당시 楚나라 지역에서는 다양한 신앙들이 유행하였는데, 신께 바치는 예물로서 香花와 香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것은 당연하였다. 특별한 전통이

17) 李曉丹, 〈曹植前後詩歌比較〉, 廣西師範大學學報, 研究生專輯, 1992, p30

18) 殷凌穎, 〈曹植詩賦對香草美人接受與創新〉, 濮陽職業技術學院學報, 第25卷 4期, 2012.8, p73

이어져 내려오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屈原의 마음속 香草美人의 形象은 자연스럽게 창작기법으로 이어졌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것은 그의 순탄치 않은 인생 역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屈原의 처지와 많이 닮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曹植의 작품 속에 移入된 사상이 楚辭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짙게 깔려 있으며, 문학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離騷>에는 다양한 종류의 香草로 가득하며 이를 장식품으로 삼아 美人의 形象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香草의 이미지를 하나의 독립적인 상징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상징물이 의미 하는 것은 사람의 인품의 고결함을 상징하고 있다. “朝飲木蘭之墜露兮，夕餐秋菊之落英” <離騷>에 나오는 구절인데 “아침엔 목란 꽃 위의 이슬을 마시고, 저녁엔 날리는 국화꽃 잎을 먹는다.” 군자의 의지와 행위를 향초에 비유하고, 이슬을 마시는 것은 시인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하며, 이슬 외에 다른 것은 마시지 않고 정결한 음식 외에는 먹지 않는 鳳凰의 典故를 인용한 구절이며, 국화도 고결하지만 가을의 국화는 더욱 그러하다.

단지 前代 文人들의 작품 중 美人의 形象은 확실하게 그려진 이미지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적, 관념적, 추상적인 符號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曹植의 後期 작품들은 前代 文人들의 작품들을 계승 발전한 것으로써 香草美人중에서 曹植은 단지 미인을 일종의 부호나 象徴적인 관념에 국한하지 않고 전형적인 예술形象으로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 신비스러운 모습과 정신세계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¹⁹⁾ 그의 명작인 <洛神賦>에 이러한 시인의 정신세계가 잘 드러나 있으며, <美女篇>에서는 고결한 자태와 수려한 용모를 지닌 시집 못간 여인의 形象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아픔을 나타낸 것들은 이러한 표현 수법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浮萍篇>과 <種葛篇>은 더욱 직접적으로 <離騷>를 모방하고 있다. 이 작품은 신혼시기에는 서로간의 사랑이 두터웠지만 결국 부부는 자식을 갖지 못하고 나이 들어 미색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점점 퇴색되어 가면서 결국 아내가 버림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과정을 노래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남편의 변심을 曹植과 형인 曹丕 사

19) 侯素利, <略論屈原與曹植筆下的必妃形象>, 宿州學院學報, 第20卷 第1期, 2005.2 pp79-80

이의 정이 옛날 같지 않음을 寄託의 수법으로 시인의 처량하고 괴로운 신세를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유수법은 전형적인 “香草美人”의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

曹植은 시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소재나 예술적인 女性의 形象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楚辭》의 내용을 거울로 삼았다. 예를 들면 소재 부문에 있어서 《楚辭》 중에서 묘사되는 여신의 形象이 曹植의 작품 중에도 洛神, 簡, 湘娥로 나타나는데, 이는 각기 <離騷>중에도 “宓妃”、“有娥之佚女”、<九歌>중에 湘君、湘夫人 등으로 등장한다. 《楚辭》는 고대신화를 주제로 한 창작활동에 즐겨 사용되곤 했는데 曹植도 이러한 작품이 적지 않다. 屈原의 <離騷>, <九歌> 宋玉의 <高唐賦>, <神女賦>등은 曹植의 <洛神賦>를 구상하고 있는 소재 선정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²⁰⁾

예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曹植의 작품은 《楚辭》의 浪漫主義 風格을 계승한 점을 알 수 있다. 曹植의 <洛神賦>, <雜詩 南國有佳人>의 두 작품은 대단히 낭만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七哀>중에서

愿爲西南風, 원컨대 서남풍이 되어
長逝入君懷. 멀리 날아 임의 품에 들어갔으면

여기에서도 낭만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고 있다.

또한 《楚辭》의 華麗한 詩語를 계승한 점을 들 수 있다. 曹植은 여인의 形象을 묘사함에 있어서 정교하고 세밀하며 화려한 文體를 이용한 점은 《楚辭》의 언어 운용상의 특징과 일맥상통한 점을 가지고 있다.

20) 殷凌穎, <曹植詩賦對香草美人接受與創新>, 瀋陽職業技術學院學報, 第25卷 4期, 2012.8, pp74-75

3. 古詩十九首

古詩十九首는 중국 詩歌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建安時期를 대표하는 文人인 曹植의 창작 활동에도 古詩十九首는 깊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후대 文人들의 詩歌 창작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어 훗날 五言詩의 발전과 성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²¹⁾

여기에서는 古詩十九首가 지닌 사상의식과 예술적 표현, 이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東漢末年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시기로 계급 사회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文人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혼란하고 불안한 생활을 이어갔으며, 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이별의 생활이 연속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은 시인으로 하여금 주관적인 이상 속에서 오는 갈등을 주제로 한 문학창작활동이 시도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시인은 현실세계의 슬픔과 감개를 표현의 주제로 삼아 자신이 처한 무기력한 신세를 우회적으로 묘사하여 자신의 심경을 위로 하고자 하였다. 비록 古詩十九首는 동일한 시기에 한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암흑기에 실의에 찬 文人들의 슬픔과 내적고통을 객관적이며 현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古詩十九首는 실질적, 정신적인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억압당하여 슬프고 괴로운 文人들의 마음을 표현해 낸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이름 없는 시인들로서, 그들의 뛰어난 작품들은 후에 曹植이나 王粲 등에 의해서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 五言詩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선구자가 되어 建安時期의 예술적인 성과를 꽃피우며 五言詩를 한층 더 성숙된 단계로 끌어 올렸다.²²⁾ 曹植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혼란시기에 태어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우여 곡절을 겪으며 성장한다. 그는 형인 曹丕와의 왕권다툼에서 밀려난 이후 귀공자 생활에서 견제와 질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데, 그의 많은 後期 詩歌들은 모두 이러한 억압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감개를 노래

21) 이치수, 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4

22) 言麗花, 〈試論古詩十九首對曹植詩歌創作的影響〉, 內蒙古農業大學學報, 第6期(第11卷(總 第48期)), 2009年, p209

한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도 말한 바 있다. 이러한 悲憤과 鬱憤을 토로하는 내용들은 古詩十九首 중에 나타난 정신세계와 서로 일치한다. 그의 사상의식은 이러한 무명 시인들의 詩歌의 세계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비관적인 인생태도가 그의 많은 작품 속에 짙게 깔려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그의 後期작품 속에는 비극의식과 생명의식이 잘 드러난다. 그는 특수한 시대적배경과 생활환경으로 말미암아 古詩十九首의 平民文人들의 인생무상과 비관적인 감상과 소극적인 정서를 표출함에 있어 영향을 깊이 받은 듯하다.

예를 들면,

日月不恒處, 人生忽若寓 (浮萍篇)

세월은 늘 한곳에 머물지 않고 인생이란 잠시 머무는 나그네살이라네.

人生處一世, 去若朝露晞 (贈白馬王彪)

사람이 한 생을 살다가, 떠나갈 때는 마치 아침이슬 마르는 듯하네.

이처럼 무궁한 우주와 유한한 인생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曹植詩歌의 중요한 주제였다.²³⁾

曹植의 詩歌 창작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古詩十九首의 계승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古詩十九首중에서 비극의 정서를 나타낸 詩句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齊心同所愿, 含意俱未申 (今日良宴會)

모든 이들 마음 같으나, 단지 드러낼 수 없어.

盈盈一水間 脈脈不得語 (迢迢牽牛星)

찰랑찰랑 물 하나 사이에 두고, 안타까워 바라보며 말을 못 잇네.

同心而離居, 憂傷以終老 (涉江采芙蓉)

같은 마음이나 헤어져 사노니, 시름에 잠겨 만년을 보내네.

23) 龔賢武, 〈古詩十九首與曹植後期詩歌共性探究〉, 文學教育, 2010.10, pp22-23

亮無晨風翼,焉能凌風飛。(凜凜歲雲暮)

생각건대 신흥의 날개가 없건만, 어찌 바람을 타고 날아갔는가?

이는 현실사회에서 끊임없는 감시와 억압 속에서 서글픈 심정을 모두 표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정서는 詩人의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심경을 인생무상의 감개로 표현하였다. 曹植은 이 방면에서 많은 인용을 하게 되는데 시구의 직접적인 인용 또한 서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人生不滿百, 戚戚少歡娛 (游仙)-	生年不滿百, 常懷千歲憂(生年不滿百)
飛觀百餘尺, 臨牖御樞軒 (雜詩)-	兩宮遙相望, 雙闕百餘尺 (青青陵上柏)
借問嘆者誰? 雲是蕩子妻 (感甄賦)-	昔爲娼家女, 今爲蕩子婦 (青青河畔草)
愿爲比翼鳥, 施翮起高翔 (送應氏)-	思爲雙飛燕, 銜泥巢君屋 (東城高且長)

이처럼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인용한 경우는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曹植이 의식적으로 古詩十九首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古詩十九首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를 짐작 할 수 있다.

曹植의 생명의식 또한 古詩十九首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東城高且長 : 蕩滌放情志, 何爲自結束! (호탕하게 씻어버리고 마음을 펴야지, 어찌 모든 것을 스스로 메이려 하는가!)

曹植의 <閨情> “取樂今日, 遑恤其他”(잠시 모든 근심걱정 내려놓고 취해나 보자.) 이 詩歌에서 나타난 의식세계는 古詩十九首나 曹植의 詩歌創作 모두 시인의 形象이 깊게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마음에 감동을 준다. 또한 古詩十九首는 曹植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女性의 形象이나 의식세계 표현들은 이와 커다란 相關性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王世貞 또한 “子建之 雜詩 六首, 可入十九首 , 不能辨也.” 曹植의 雜詩 六首는 古詩十九首와 思想的으로나 藝術性 면에서 아주 흡사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라고 적고 있다. 결국에는 曹植의 詩歌는 의도적으로 古詩十九首를 흡

24) 張卓群, <從形象的繼承上看古詩十九首對曹植詩歌的影響>, 忻州師範學院學報, 第28卷 第6期, 2012. 12, pp28-29

수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古詩十九首에 대한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는 데에는 詩歌의 기본 내용이나 현실성과 사상성, 후대 文人들의 관심만이 아니라 古詩十九首의 예술적 특색이 후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많은 새로운 작품 활동에서 象微的 수법 등의 운용들이 후대 文人들에게 전승 되어 내려온 점들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²⁵⁾

<西北有高樓>

西北有高樓，上與浮雲齊。	서북에 높은 누각 있어 구름에 떠있는 듯하네
交疏結綺窗，阿閣三重階。	창틀 가득 화려한 꽃문양 계단은 삼중이라
上有弦歌聲，音響一何悲！	누각에서 들려오는 처량한 음악소리
誰能爲此曲，無乃杞梁妻。	이 음악을 지은이는 기량의 부인일터
清商隨風發，中曲正徘徊。	청산 곡은 바람에 실려 오다 이내 머뭇거리니
一彈再三嘆，慷慨有餘哀。	한번 타면 세 번 탄식 슬픔을 이길 길 없네.
不惜歌者苦，但傷知音稀。	애석한건 슬픈 마음보다 그 마음을 알아줄 이 없는것
願爲雙鴻鵠，奮翅起高飛。	바라 건데 한 쌍의 기러기 되어 하늘 높이 날았으면

曹植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등장시켜 자신의 정치적인 실의를 의미하고 있다. 詩歌는 허와 실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전 詩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사실을 묘사하는 高樓, 音樂, 虛像 등에는 자신의 비애의 심경과 노래 부르는 자의 形象을 그려내고 있다. 전자의 등장을 통하여 후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曹植의 많은 창작 작품들은 이러한 표현 수법을 계승했는데 <美女篇>이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美女篇>은 그 착상과 구성이 매우 정교하고 뛰어나다. 전반부는 여인의 용모와 자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다가 후반부는 반전하여 여인의 비극적 운명을 그려내어 전체적으로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 詩歌는 표면적으로는 閨怨詩와 비슷해 보이나 실제로는 시인 자신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詩歌 중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 고아한 품격, 큰 포부는 바로 曹植 자신의 화려한 形象의 묘사이며, 그 자신의 험난한 운명에 어찌할 수 없어 내쉬는

25) 歐陽竹, <論前代文學對曹植女性題材作品的影響>, 衡陽師範學院中文系 .大衆文藝, p104

긴 한 숨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정치적인 억압과 소외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며 美女의 운명이 바로 曹植 자신의 처지를 象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詩歌들은 다른 각도에서 曹植의 다양한 정감을 서술한 것이며 象徴의 수법으로 曹植의 마음 속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과 울분을 美女, 佳人, 蓬草 등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비유하여 깊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예술적인 표현 手法 면에서는 바로 古詩十九首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象徴의 수법 이외에도 文人과 일반평민과 융합된 창작정신을 계승한 점이 그것이다.²⁶⁾ 그리하여 古詩十九首는 文人 五言詩의 先驅者的 역할을 한 점들을 들 수 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詩歌에는 文人들의 색채가 농후하게 묻어난다. 詩歌에 詩語들이 순박하고 생동감 넘치며 자연스런 口語的인 표현이 많은 것은 작가 대부분이 실의한 下層文人 출신인 까닭이다.

예를 들면

二 (青青河畔草)

昔爲倡家女	지난날은 기생집의 여인이었고
今爲蕩子婦	지금은 방탕한 사내의 아내라네
蕩子行不歸	당자는 가고 돌아오지 않으니
空床難獨守	빈 침상 홀로 지키기 어렵다네.

十七. (孟冬寒氣至)

客從遠方來	나그네 멀리서 와서
遺我一書札	내게 편지 한 장 전해주네.
上言長相思	위에는 오랜 동안 서로 생각했음을 말하고
下言久離別	아래는 이별이 길어짐을 말하네.

26) 言麗花, 〈試論古詩十九首對曹植詩歌創作的影響〉, 內蒙古農業大學學報, 第6期第11卷, 2009, p210

十五 (生年不滿百)

生年不滿百	사는 세월은 백년이 못 되건만
常懷千歲憂	항상 천년의 근심을 품고 사네.
晝短苦夜長	낮은 짧고 괴로운 밤은 긴데
何不秉燭遊	어찌 촛불을 밝히고 놀지 않으리.

이러한 서술이나 묘사는 비록 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 독자들이 읽기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없으며, 이러한 원인은 詩語들이 통속적이고 친근감에서 기인한 때문이다. 원래 曹植은 古詩十九首의 작자와 같이 민간문학의 뛰어난 부분을 받아들여 거기에 詩語를 조탁하고 융합하여 오언시를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린 걸출한 文人이었다.²⁷⁾ 詩品에서 말하기를 “詞采華茂” 그의 시는 詩語가 화려하고 색채가 뚜렷하며 쾌기 있고 의외로 수준이 높아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曹植의 詩歌는 비록 文體가 화려하나 순박하고 평이한 것이 큰 특징으로써 曹植 詩歌의 근원을 詩經의 국풍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²⁸⁾

시대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로 당시 문단의 풍조에 의해 그의 詩語는 더욱 더 화려해지면서 文人化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明月照高樓, 流光正徘徊. (七哀),
 悠悠遠行客, 去家千餘里. (雜詩),
 高樹多悲風, 海水揚其波. (野田黃雀行),
 南國有佳人, 容華若桃李. (雜詩)

이들 작품속의 내용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청아하고 또한 친근감을 갖게 하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曹植의 詩語는 화려한 동시에 자연스러우며 평범함의 또 다른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사상의식이나 예술적 표현수법 이외에도 曹植은 古詩十九首의 또 다른 방면의

27) 이치수, 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5
 28) 張欣欣, 〈曹植詩文與《詩經》〉, 湖南工業技術學院, 第6期 第8卷, 2008.12, p87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의 심정을 그린 思婦詩나 遊仙詩 등을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점이다. 胡應麟이 말하기를 “古詩十九首 이후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 창작활동을 하는 시인은 曹植밖에 없다”고 하였으며,²⁹⁾ 張戒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曹植과 古詩十九首가 으뜸이다.³⁰⁾ 라고 할 만큼 뛰어난 文人 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曹植은 古詩十九首중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얻어 자신의 詩歌 창작활동에 적극적으로 융합을 시도하여 詩歌창작에 있어서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고, 자신만의 독특한 풍격을 형성하였으며, 建安時期 문단을 빛낸 장본인으로서 오늘날 文人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29) 胡應麟, 《詩藪》, 上海古籍出版社, 1979, p185

30) <http://www.chinawriter.com.cn>, 來源, 中國文學史

Ⅲ. 前 · 後期 詩歌의 特徵 比較分析

曹植의 생애는 建安 25년 曹操가 죽은 해를 경계로 前期와 後期 두 개의 시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前期를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192년에 태어나서 216년까지의 시기로 曹植이 부친인 曹操의 기대와 총애를 받으며 지낸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217년에서 219년까지로 曹植이 부친의 관심에서 멀어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後期도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앞 시기는 220년에 조조가 죽고 曹丕가 제위에 올라 文帝가 되었던 6년간 黃初라는 年號를 사용하였던 시기이고, 뒤의 시기는 226년에 曹丕가 죽고 아들 曹叡가 뒤이어 제위에 올라 明帝가 되고 太和로 연호를 바꾼 이후의 6년간이다.³¹⁾

전체적으로 보아서 曹植의 생애는 前期의 여유롭고 즐겁던 생활이 後期에 들면서 曹丕와 曹叡 두 부자에 의해서 갖가지 시기와 억압을 받던 시기와 서로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後期에 들어 明帝 때는 文帝 때에 비하여 핍박이 상대적으로 덜 하였으나, 曹植이 바라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하게 지낸 점은 마찬가지였다. 建安 25년 10월 曹操가 죽자 曹丕가 皇位를 계승하였으며,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부터 曹植은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며 극도의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曹丕는 자신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제후 왕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그들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정치상 적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黃初 7년에 曹丕가 죽고 曹叡가 즉위하니 바로 明帝이며 太和로 연호를 바꾸었다. 그러나 曹植의 처지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明帝는 曹植이 토착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세력을 키우는 것이 두려워 그의 封地는 자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바뀌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 통제가 다소 완화되어 曹植은 희망을 품고 明帝에게 몇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자신을 중용해 주길 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리하여 曹植은 晩年에 홀로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하인들 뿐 이었고, 마주하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처자뿐이라 고상한 담론을 같이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여도 함께 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결국 太和 6년 11월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하고 결코 많다 할 수 없는

31) 이종진 편저, 《曹植詩選》, 문이재, 2002. 2, p6

나이에 쓸쓸하게 죽으니 당시 향년 41세였다.

曹植의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은 그의 인생 역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前·後기로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³²⁾

前期 작품의 내용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그 품격이 밝고 명랑하고 다분히 직설적이었다. 後期 작품 내용은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이 女性의 形象으로 묘사되었으며, 내용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품격 또한 깊고 심오한 함축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창작기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더욱 더 기민하고 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鍾嶸의 <詩品>에서는 建安時期 “建安之杰”(建安時期的 뛰어난 문학가이다.)로 曹植을 칭송했으며 형인 曹丕와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후 위풍당당하고 커다란 포부를 지닌 왕자의 신분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억압과 질시를 받으며 연금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나간다. 이러한 그의 후반 인생은 굴절된 삶의 연속으로 비극적이고 슬픈 처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역경의 연속인 삶은 그의 문학 창작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자극으로 다가와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주위환경의 급변은 바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재능이 뛰어난 그로 하여금 작품 활동에 있어서 내용을 더욱 더 풍부하게 살찌우고 형식의 변화는 한층 더 성숙해 지면서 建安時期 詩壇을 한층 더 크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 속에서 내용상 어떠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한다.

1. 前期의 詩歌

(제1기: 初平3年(196)~建安15年(220), 제2기: 建安16年 (221)~建安22年(217))

曹植은 漢末 魏初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에 성장하였으며, 부친인 曹操와 함께 전쟁터를 전진하는 일상은 曹植의 앞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32)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18

그는 일찍이 부친인 曹操를 따라서 자주 먼 곳으로 원정길을 나섰으며, 여기에서 曹操는 曹植의 뛰어난 시문창작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며 이러한 曹植을 내심 태자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친의 총애 속에서 曹植은 높은 기상과 큰 포부를 품고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 원대한 뜻을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³³⁾

이 시기 그의 작품은 대부분 친구와의 왕래나 貴公子들의 일상생활과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반영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반해 婦女를 소재로 한 작품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다. 또한 이 시기 女性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표현 수법이 객관적인 묘사나 사실적인 묘사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집가는 여인네의 부산한 모습을 보고 쓴 작품인 <感婚賦>나 <女媧贊>, <姜源簡狄贊>, <班婕妤贊> 등은 역사적 인물의 女性을 칭송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제왕이나 귀공자에 대한 찬사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작품 <雜詩 六>은 曹植 詩歌의 風格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기꺼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큰 공을 세워 자신의 큰 뜻을 펼치려는 웅대한 포부를 서술하는 동시에 그의 이러한 의지가 저지당하여 실현할 수 없는 복받치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은 비록 부친의 총애를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웅대한 의지만은 버릴 수 없어 그의 詩歌는 일종의 세속을 초월하는 높은 기개와 패기를 표현하고 있다. “飛觀百餘尺” 거침없이 높은 기상의 形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形象은 높은 하늘로 향해서 날아가 높은 곳에 기거하니 어찌 그 모습이 웅대하지 않겠는가? 시인은 여기에서 눈앞에 펼쳐진 아주 높은 누각에서 높은 기상을 펼치고자 하는 패기를 엿볼 수 있으며, 아래 작품은 曹植 자신의 젊은 시절 웅대한 기개와 굳은 의지를 象徵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雜詩 六>³⁴⁾

飛觀百尺餘, 나는 듯 높은 망루 백여 자나 되는데

33) 이종진 편저, 《曹植詩選》, 문이재, 2002. 2, pp6-7

34)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170-171

臨牖御樞軒.	창가에 다가가 난간에 기댄다.
遠望周千里,	멀리 주위의 천리를 둘러보고
朝夕見平原.	아침저녁으로 평원이 바라보이누나.
烈士多悲心,	열사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많으나
小人媮自閑.	소인배들은 자신의 편안함만을 즐기네.
國讎亮不塞,	나라의 원수 아직 제대로 막지 못하여
甘心思喪元.	기꺼이 목숨을 바치리라 생각하네.
拊劍西南望,	칼을 부여잡고 서남쪽을 바라보면서
思欲赴太山.	태산으로 달려가고픈 마음이네.
絃急悲風發,	금의 소리 급박하고 슬프게 울리는데
聆我慷慨言.	나의 비분강개한 말을 들어보시라.

前期의 작품 대부분은 원대한 이상과 웅혼한 포부를 묘사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白馬篇>에서는 한 청년이 전쟁터에 나가 영웅적 기개와 용감한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겪은 생활을 서술하고 있으며, 시 전체의 내용은 무예가 출중한 애국용사의 形象을 빌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자 하는 호방한 성격과 원대한 포부를 지닌 소년상을 그려내고 있다.³⁵⁾ 아래의 <白馬篇>은 曹植의 前期作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白馬篇>³⁶⁾

白馬飾金羈,	백마는 황금 굴레 장식을 하고
連翩西北馳.	나는 듯이 서북으로 달리네.
借問誰家子,	문노니 누구 집의 자제인가
幽并游俠兒.	유주와 병주의 험객이라네.
少小去鄉邑,	어려서 고향 떠나
揚聲沙漠陲.	변경 사막에서 이름 떨쳤다.

35)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42

36)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41-243

宿昔秉良弓，
 楛矢何參差。
 控弦破左的，
 右發摧月支。
 仰手接飛猱，
 俯身散馬蹄。
 狡捷過猴猿，
 勇剽若豹螭。
 邊城多警急，
 胡虜數遷移。
 羽檄從北來，
 厲馬登高堤。
 長驅蹈匈奴，
 左顧陵鮮卑。
 棄身鋒刃端，
 性命安可懷？
 父母且不顧，
 何言子與妻？
 名編壯士籍，
 不得中顧私。
 捐軀赴國難，
 視死忽如歸。

늘 좋은 활을 잡고 있는데
 화살은 어찌 이리 들쭉날쭉 많기도 한가.
 활을 당기니 왼쪽 과녁을 뚫고
 오른쪽을 쏘니 월지 과녁을 깨트린다.
 손을 들어 나는 원숭이를 쏘아 맞히고
 몸을 숙여 마제를 쏘아 깨뜨린다.
 기민하고 민첩하기가 원숭이보다 뛰어나고
 용맹하고 재빠르기는 마치 표범과 교룡 같다.
 변성에 위급한 경보 많으니
 오랑캐 기병 침입이 잦구나.
 새 깃 격문이 북에서 날아오니
 말을 급히 몰아 높은 제방에 오른다.
 먼 길을 달려 흉노를 정벌하고
 왼쪽을 돌아보고 선비를 제압한다.
 몸을 칼날 끝에 내맡겼으니
 생명을 어찌 연연해하랴
 부모님도 돌볼 수 없거늘
 처자식이야 말해 무엇 하리.
 이름 장사의 명부에 올랐으니
 사사로운 정은 고려할 수 없네.
 나라의 어려움에 몸을 바치니
 죽는 것을 집에 돌아가는 것쯤으로 가벼이 여기네.

<感婚賦>³⁷⁾

陽氣動兮淑清，
 百卉鬱兮含英。
 春風起兮蕭條，
 蟄虫出兮悲鳴。

봄기운이 움직여 맑고 깨끗하니.
 온갖 풀들은 무성하여 꽃을 머금었네.
 봄바람이 일어나 쓸쓸한데,
 잠자던 벌레들 나와 슬프게 우네.

37)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84-85

顧有懷兮妖嬈，	마음에 품었던 아리따운 여인을 바라보며，
用搔首兮屏營，	머리를 긁으며 당황해 하네.
登淸臺以蕩志，	천문대에 올라 마음껏 생각하고，
伏高軒而游情．	높은 난간에 머물며 흥을 즐기네．
悲良媒之不顧，	좋은 매파 돌아보지 않아 슬프고，
惧歡媾之不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慨仰首而太息，	머리를 들어 개탄하며 긴 탄식 하는데，
風飄飄以動纓．	바람이 획 불어와 갓끈을 움직이네．

화창한 봄, 만물이 소생하는 시절, 한 아름다운 소녀가 규방에서 마음에 둔 연인을 그리워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며 먼 하늘만 쳐다보며 긴 한숨만 내쉬다. 시인은 마음 속으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연민의 운명을 강렬한 대비로 구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曹植의 이러한 정감은 여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발전하였으나, 자신의 처지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심경을 서술하고 있다.³⁸⁾

또한 曹植은 감성이 풍부한 시인으로서 그의 작품 중에 이러한 진실된 정감을 자주 토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신의 어린 두 딸을 갑자기 잃은 후 커다란 충격을 받고 이것을 주제로 한 작품이 바로 <慰子賦>와 <行女哀辭>인데 이러한 작품을 비유적 수법으로 표현해 자신의 두 딸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慰子賦>³⁹⁾

彼凡人之相親，	무릇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면，
小離別而懷戀．	사소한 이별에도 그리움을 품는데，
況中殤之愛子，	하물며 어린 나이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38) 趙幼文은 <曹植集校注>에서“似爲曹植青年時期，有所戀慕而志不遂，發爲篇章，以抒寫內心苦悶情緒之作”“이는 曹植의 청년기 작품으로 마음속에 간직된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심경을 창작활동을 통해서 괴롭고 답답한 정서를 표현하였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39)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66-67

乃千秋而不見。
入空室而獨倚，
對孤幃而切嘆。
痛人亡而物在，
心何忍而復觀。
日晡晚而既沒，
月代照而舒光。
仰列星以至晨，
衣沾露而含霜。
惟逝者之曰遠，
愴傷心而絕腸。

게다가 천추에도 볼 수 없음에라!
빈방에 들어가 홀로 기대섰다가,
외로운 휘장을 마주하고 비탄에 빠지네.
애통하게도 사람은 죽고 물건은 남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참아내며 다시 볼 수 있겠나?
해는 저물어 다 넘어가고,
달이 대신 비추며 빛을 발하네.
별들을 우러러 보며 새벽까지 이르니,
옷은 이슬에 젖고 서리를 머금었네.
죽은 아이가 나날이 멀어짐을 생각하니,
마음은 슬퍼지고 간장은 끊어지네.

<行女哀辭>

伊上靈之降命，
何短修之難裁。
或華發以終年，
或懷妊而逢災。
感前哀之未闕，
復新殃之重來。
方朝華而晚敷，
比辰露而先晞。
感逝者之不追，
悵情忽而失度。
天蓋高而無階，
懷此恨其誰訴

상제가 수명을 내려주시는데,
어찌하여 장단을 헤아리기 어려운가?
혹 노인이 되어서 수명을 마치기도 하고,
혹 회임하자마자 재앙을 만나기도 하네.
슬프게도 지난 슬픔 미처 다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새로운 재앙이 거듭 닥쳐왔네.
무궁화가 저녁에 피는 것처럼,
새벽이슬 보다 먼저 말라버리네.
죽은 자를 따라갈 수 없음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은 멎해지고 평상심을 잃네.
하늘은 높이 덮여 층계도 없는데,
이 한을 품고서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자식을 잃은 슬픈 일을 겪은 까닭으로 그는 다른 사람이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슬픈 감정을 토로하고 있으며, 한 여인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다. 또한 封建主義 儒敎思想이 남녀간의 자유로운 혼인을 제약하는데 대해 매우 분개하였다.

<愍志賦>의 여주인공이 혼인의 자유를 갈망하나 유교적인 규범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만 하는 그녀의 서글픈 마음을 “思同游而無路, 情奎隔而靡通. 哀莫哀于永絶, 悲莫悲于生離.” 시인은 이러한 생이별에 대한 아픔과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없는 현실에 깊이 동정하고 있다.

<愍志賦>⁴⁰⁾

竊托音於往昔,	지난날 몰래 소식을 부탁하였으나,
迄來春之不從.	끝내 봄이 와도 이르지 않네.
思同遊而無路,	함께 노닐려 해도 방법이 없으니,
倩壅隔而靡通.	마음은 가로막혀 통하지 않네.
哀莫哀於永絶,	애달프기는 영원한 이별만큼 애달픈 것이 없고,
悲莫悲於生離.	슬프기는 생이별만큼 슬픈 것이 없네.
豈良時之難俟,	어찌 이리 좋을 때 기다리기가 어려운가?
痛予質之日虧.	애통함으로 내 몸은 나날이 일그러지네.
登高樓以臨下,	높은 누대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고,
望所歡之攸居.	그 사랑하는 임이 사는 곳을 바라보네.
去君子之清宇,	군자의 깨끗하고 조용한 집을 떠나서,
歸小人之蓬廬.	소인의 떠 집으로 돌아가야겠네.
欲輕飛而從之,	가볍게 날아서 임을 따라가고 싶어도,
迫禮防之我拘.	예법에 간혀 나 자신을 구속하네.
妾穢宗之陋女,	첩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못난 여식으로,
蒙日月之餘輝.	해와 달 같은 은혜를 입어,
委薄軀于貴戚,	미천한 몸을 제왕의 친척에게 맡기고,
奉君子之裳衣.	나리의 옷을 받들어 모시게 되었네.

40)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79-80

그는 序文에서 이웃집의 딸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당시 좋은 媒婆가 없어서 혼례가 그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었다. 그러한 사정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에 賦를 지었다. 라고 적고 있다.⁴¹⁾

平虜 將軍인 劉勛의 妻子인 王宋은 20년이 다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여 이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들여 王宋을 쫓아냈는데, 이일을 두고 曹植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시인은 이러한 이유를 구실삼아 버림을 받은 王宋을 생각하며 <棄婦篇>에서 말하기를

悲鳴夫何爲.	슬피 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丹華實不成.	붉은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네.
拊心長嘆息.	가슴을 치며 길게 탄식하니
無子當歸寧.	자식이 없으면 친정집에 돌아와야 하네.
有子月經天.	자식 있는 사람은 달이 하늘에 떠서 가는 것과 같고
無子若流星.	자식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별과 같으니
天月相終始.	하늘과 달은 언제나 함께 있지만
流星沒無精.	떨어지는 별은 빛이 없어져 버리네.

<代劉勛妻王氏見出爲詩>

人言去婦薄,	누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의 덕행이 박하다 말하나
去婦情更重.	버림받은 부인의 정은 더욱 깊다네.
千里不唾井,	천리 길 떠나가더라도 우물에 침을 뱉지 않는 법인데
況乃昔所奉.	하물며 옛날에 받들던 분이야 더 말할 나위 있으랴.
遠望未爲遙,	멀리 바라보니 아직 그리 멀지 않으나
脚躅不得共.	머뭇거리며 차마 가질 못하네.

41)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79

자식이 없는 것은 여자의 잘못이 아닌데, 그녀의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이유는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자는 부모와 조상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으로 버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풍조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 당시는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으며, 자식을 가져야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자기의 인생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曹植은 버림받은 婦女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수많은 작품 속 주제로 그들의 아픔을 표현하였다.

또한 <出婦賦>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같이 그는 자신의 수많은 작품 속에서 이러한 아픔을 간직한 여인네들의 애환과 고통을 심도 있게 묘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曹植의 前期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은 대부분 대상을 客觀的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그 표현이 진솔하고 虛構的 구성이 아닌 현실생활을 사실적이고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비유나 寄託의 수법 사용은 적은 반면 직접적인 표현방법이 늘었고, 풍격은 오히려 밝고 호쾌한 면을 알 수 있다.⁴²⁾

建安25년 曹丕가 황제에 등극한 해 曹植의 나이 29세가 되던 시기, 그에게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권력 구도에서 형인 曹丕에게 밀린 후 각가지 제약과 견제로 말미암아 주변 생활환경이 급변하면서, 그 작품의 내용 또한 이전과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청년시절 자신이 품었던 포부와 기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실망감과 현실과 이상간의 갈등 속에서 오는 아픔을 불행하고 슬픈 처지의 여인에게 寄託하여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後期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사실 묘사를 자제하는 반면 비유와 은유적인 수법으로 버림받은 불우한 女性의 形象을 빌어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나타내고자 했다.

42)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15-26

2. 後期の 詩歌

(제1기:建安23年(218)~黃初7年(226), 제2기: 太和 元年(227)~太和6年(232))

장르상으로 보면 曹植의 80여 수 작품들은 모두 抒情詩에 속하며 前期에 쓰여진 10여수는 주로 이별, 친구에게 보내는 시, 그리고 游宴詩로 구분할 수 있다. 後期 작품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동한 작품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雜詩, 詠史, 宴會, 從軍, 田園, 棄婦, 游仙 等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前代에 비하여 선구자적 역할을 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

前期의 詩歌는 주로 자신의 理想과 抱負를 樂觀的이며 浪漫的인 情感으로 묘사하며 귀족적인 특색을 보인 반면, 後期 詩歌는 이상과 현실의 모순에서 오는 비분과 걱정을 분출시킨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曹植의 後期 詩歌들은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³⁾

첫째는 자신과 친구를 박해하는 것에 대한 비분을 서술한 작품들이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野田黃雀行>, <贈白馬王彪>가 있다.

<野田黃雀行>⁴⁴⁾

高樹多悲風,	높은 나무에 슬픈 바람 많이 불고
海水揚其波.	바닷물은 파도를 드날린다.
利劍不在掌,	날카로운 칼 내 손에 없으니
結友何須多.	친구를 사귀어 어찌 꼭 많아야 할 것인가.
不見籬間雀,	보지 못했는가, 울타리의 참새가
見鷄自投羅.	새매 보고 피하려다 그물에 뛰어드는 것을
羅家得雀喜,	그물 친 사람은 참새 잡아 기뻐하나
少年見雀悲.	소년은 참새 보고 슬퍼한다.

43) <曹植前後詩歌比較>, 廣西師範大學學報, 研究生專輯, 1992, pp29-30

44)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27-228

拔劍捎羅网,
黃雀得飛飛.
飛飛摩蒼天,
來下謝少年

칼을 뽑아 그물을 끊어주니
참새는 훨훨 날아간다.
훨훨 푸른 하늘에 날았다가
내려와 소년에게 감사하네.

<贈白馬王彪>45)

其一

謁帝承明廬,
逝將歸舊疆.
清晨發皇邑,
日夕過首陽.
伊洛廣且深,
欲濟川無梁.
泛舟越洪濤,
怨彼東路長.
顧瞻戀城闕,
引領情內傷.

승명려에서 임금을 알현하고
장차 옛 땅으로 돌아가려 할 제
이른 아침 낙양을 떠나
저녁 무렵에 수양산을 지나네.
이수와 낙수는 넓고도 깊은데
건너려 해도 강에 다리가 없네.
배 띄워 큰 파도를 헤쳐 건너려니
동쪽으로 돌아가는 저 길이 먼 것을 원망하노라.
뒤돌아보며 성궐을 떠나기 아쉬워하며
목을 길게 빼서 바라보니 감정에 가슴이 상하네.

其二

太谷何寥廓,
山樹鬱蒼蒼.
霖雨泥我塗,
流潦浩縱橫.
中逵絕無軌,
改轍登高岡.
修坂造雲日,
我馬玄以黃.

태곡은 어찌 이리 쓸쓸한가,
산에 나무만 울창하게 질푸르다.
장맛비에 내 가는 길 진흙탕 되고
흐르는 도랑물은 종횡으로 세차다.
길에는 수레바퀴 자국도 두절되어
길 바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노라.
기나긴 산비탈이 구름 속에 들어가니
내 말은 누렇게 병이 들었네.

45)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184-192

其三

玄黃猶能進,
我思鬱以紆.
鬱紆將何念,
親愛在離居.
本圖相與偕,
中更不克俱.
鷗臯鳴衡掇,
豺狼當路衢.
蒼蠅間白黑,
讒巧令親疏.
欲還絕無蹊,
攬轡止踟躕.

누렇게 병들어든 말은 나아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울적하네.
울적하여 나아가기 어려우니
친애하는 이와 떨어져 살게 되어서라네.
본래 함께 가고자 했으나
중도에 바뀌어 함께 갈 수 없었네.
을빼미는 수레 채 끝 횡목과 멩에 가에서 울고
승냥이는 큰 길을 가로막는다.
과리들 흑백을 전도시키고
참언과 교묘한 말들 골육의 정 소원케 한다.
돌아가려 해도 길이 끊어지고 없으니
고삐 잡고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라네.

其四

踟躕亦何留.
相思無終極.
秋風發微涼,
寒蟬鳴我側.
原野何蕭條,
白日忽西匿.
歸鳥赴喬林,
翩翩厲羽翼.
孤獸走索群,
銜草不遑食.
感物傷我懷,
撫心常太息.

머뭇거리면서 또 어찌 머무르나
그리워하는 마음 끝이 없기 때문이네.
가을바람 일어 약간 서늘하고
쓰르라미 내 곁에서 우네.
들판은 어찌 이리 스산한가.
태양은 홀연 서산으로 숨어버리네.
돌아가는 새는 높은 나무의 숲으로 향하며
훨훨 날개 짓을 하네.
외로운 짐승도 무리 찾아 헤매느라
풀을 머금고도 한가로이 먹지 못하네.
경물들 보고 느끼자니 내 마음 더욱 서러워
가슴을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하노라.

其五

太息將何爲，
 天命與我違。
 奈何念同生，
 一往形不歸。
 孤魂翔故域，
 靈柩寄京師。
 存者忽復過，
 亡沒身自衰。
 人生處一世，
 去若朝露晞。
 年在桑榆間，
 影響不能追。
 自顧非金石，
 咄嗟令心悲。

길게 탄식한들 무엇 하리오
 운명이 나와 어긋난 것을.
 동생을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한 번 가면 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외로운 녀은 옛 땅을 날아다니는데
 영구는 낙양에 맡겨져 있네.
 산 자는 홀연히 생을 다할 것이고
 죽으면 저절로 썩어 없어지리라.
 사람이 한 생을 살다가
 떠나갈 땐 마치 아침 이슬 마르듯 하네.
 내 나이도 늘그막
 시간은 그림자나 소리처럼 뒤쫓을 수 없구나.
 스스로 이 몸 쇠나 돌 같이 오래지 못함을 생각하니
 아아, 마음이 슬퍼지네.

其六

心悲動我神，
 棄置莫復陳。
 丈夫志四海，
 萬里猶比隣。
 恩愛苟不虧，
 在遠分日親。
 何必同衾幃，
 然後展殷勤。
 憂思成疾疢，
 無乃儿女仁。
 倉卒骨肉情，
 能不懷苦辛？

마음이 슬퍼 내 정신을 동요시키지만
 내버려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
 대장부는 천하에 뜻을 두니
 만 리 먼 곳도 가까운 이웃 같네.
 은혜롭고 사랑하는 마음이 줄지 않는다면
 멀리 있어도 그 정분은 날로 깊어지리니
 어찌 반드시 한 이불을 덮고 같은 침대에서 지내야
 은근한 정이 드러나는 것이겠는가.
 근심하여 열병을 앓는다면
 어찌 아녀자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갑작스레 헤어지는 골육의 정이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其七

苦辛何慮思,	괴로워하며 무슨 생각을 하나
天命信可疑.	운명은 참으로 의심스럽네.
虛無求列仙,	여러 신선들 찾아다니는 것도 허무한 일
松子久吾欺.	적송자는 오랫동안 나를 속였구나.
變故在斯須,	변고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니
百年誰能持.	그 누가 백년을 살 수 있으리오.
離別永無會,	이제 이별하면 영원히 만날 수 없거늘
執手將何時.	어느 때나 손을 잡아 볼 수 있으려나.
王其愛玉體,	왕께선 몸을 소중히 하여
俱享黃發期.	함께 누런 머리 되도록 장수를 누리봅시다.
收淚卽長路,	눈물 거두고 먼 길 떠나며
援筆從此辭.	붓 들어 시 몇 수로 이로써 작별을 고하노라.

이 작품은 형제 사이에 생이별의 아픔을 토로하고 정치적 압박 아래서 生死를 보존할 수 없음을 우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대하여 강렬하게 격분하며 항의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는 思婦나 棄婦의 形象으로 자신의 신세를 寄託의 수법을 통해서 감정을 표출한 詩歌들이다. <美女篇>, <七哀詩>, <雜詩>, <西北有織婦>, <南國有佳人>등을 대표작으로 들 수 있다. 이들 詩歌들은 정감이 처량하고 함축이 깊어 무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는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술회한 詩歌이다. <白馬篇>, <雜詩.五>가 대표작으로 이 시편들에는 黃初 이후 불안한 정국에서 立功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며 유가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⁴⁶⁾.

46) <曹植前後詩歌比較>, 廣西師範大學學報, 研究生專輯, 1992, pp27-31

<雜詩 五>⁴⁷⁾

僕夫早嚴駕,	마부가 일찍 수레를 손보는 것은
吾行將遠游.	내 장차 먼 길 떠나려 하기 때문이라네.
遠游欲何之,	먼 길 떠나 어디로 가려 하는가
吳國爲我仇.	오나라가 나의 원수라네.
將騁萬里途,	장차 만 리 길을 내달리려는데
東路安足由.	봉지 가는 동쪽 길을 어찌 거쳐 가겠는가.
江介多悲風,	강가엔 서글픈 바람이 많고
淮泗馳急流.	회수와 사수에 급한 물결 달린다.
愿欲一輕濟,	단번에 훌쩍 건너고 싶지만
惜哉無方舟.	아쉽도다. 배가 없구나.
閑居非吾志,	한가로이 지내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니
甘心赴國憂.	기꺼이 나라의 걱정 풀기 위해 나서고 싶네.

넷째는 遊仙詩이다. 왕권구도에서 형인 曹丕에게 밀린 후 억압과 감시로 인해 좌절감으로 세월은 흐르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그는 허구적 구상체인 신선을 통한 해탈을 동경하게 된다. <仙人篇>, <遊仙詩>, <遠遊篇> 등은 逍遙하는 神仙의 묘사로 모두가 맑고 깨끗함과 고결함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추구는 그가 동경했던 이상세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仙人篇>⁴⁸⁾

仙人攬六箸,	신선은 대젓가락 여섯을 손에 쥐고
對博太山隅	태산 모퉁이에서 마주보고 육박을 놓고 있네.
湘娥拊琴瑟,	상강의 여신은 금과 비파를 뜯고

47)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169-170

48)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33-236

秦女吹笙竽
玉樽盈桂酒,
河伯獻神魚
四海一何局,
九州安所如
韓終與王喬,
要我于天衢
萬里不足步,
輕舉凌太虛
飛騰逾景雲,
高風吹我軀
回駕觀紫微,
與帝合靈符
閭闔正嵯峨,
雙闕萬丈餘
玉樹扶道生,
白虎夾間樞
驅風游四海,
東過王母廬
俯觀五岳間,
人生如寄居
潛光養羽翼,
進趣且徐徐
不見昔軒轅,
升龍出鼎湖
徘徊九天下,
與爾長相須

진나라 여인은 피리를 불고 있구나.
옥 술통에 계수나무 술이 가득하고
하백은 신령스런 물고기를 바치네.
세상은 어찌 이리 좁은가
천하의 땅 어디로 갈 것인가.
한종과 왕자교는
하늘 거리에서 만나지고 나를 부르네.
만 리 길도 한 걸음이 못 되어
가벼이 날아 하늘에 오른다.
오색찬란한 구름을 넘어 날아오르니
높이 부는 바람 내 몸에 불어오네.
수레를 돌려 자미궁을 바라보고
천제와 신령스런 부적을 맞추어 보네.
천문은 마침 우뚝 높이 솟아 있고
양쪽 망루는 높이가 만여 장이나 되는구나.
옥수는 길을 따라 자라있고
백호는 문지도리를 끼고 있네.
바람을 몰아 타고 사해에서 노닐고
동쪽으로 서왕모의 거처를 지나가네.
오악의 사이를 굽어보니
인생이란 세상에 잠시 몸 붙여 사는 듯하네.
빛을 거두어 날개를 기르며
앞으로 나아가며 천천히 행동하리라.
보지 못했는가, 현원씨가
용을 타고 정호를 떠난 것을.
가장 높은 하늘 위에서 배회하며
그대를 오래오래 기다리네.

<遊仙>⁴⁹⁾

人生不滿百.	사람이 살아 백 살을 채우지 못하는데
戚戚少歡娛.	해 마다 해 마다 즐거운 일 적네.
意欲奮六翮.	이 내 마음은 날개깃을 떨쳐
排霧陵紫虛.	안개를 밀치고 하늘에 오르고자 하네.
虛蛻同松喬.	적송자와 왕자교 같이 속세를 벗어나
翻迹登鼎湖.	날아서 정호에서 올라가네.
翱翔九天上.	높은 하늘을 날아돌고
騁轡遠行游.	말을 타고 한껏 달려 먼 곳에 가 노닌다.
東觀扶桑曜.	동쪽으로 부상의 햇빛을 보고
西臨弱水流.	서쪽으로 약수의 흐르는 물가에 임한다.
北極登玄渚.	북쪽으로 현천저에 이르고
南翔陟丹邱.	남쪽으로 단구를 날아오른다.

後期에 들어서 그는 주제의 범위를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 소재의 특징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前期는 표현기법이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나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묘사수법을 선호하였다면 後期에 들어와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비유와 은유적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깊은 숨意를 지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행동의 제약과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그는 늘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어느 때는 역사 속 인물을 중심으로, 혹은 신화나 전설 속 인물을 통해서, 혹은 버림받은 부인의 허구적 구상을 통해서, 시집 못 간 아리따운 여인의 形象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寄託하는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다.⁵⁰⁾

예를 들면 버림받은 부인을 주제로 한 작품 <棄婦詩>에서 자식을 낳지 못해 버림받은 여인 形象을 묘사하면서 남편의 무정함을 남편의 이름을 들어 직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諷刺劉助藉無子出妻” 청소년기 曹植은 현실이나 미래에 대

49)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54

50) <淺論曹植詩歌的形象寄托手法>, 張家口技術學院學報, 第18卷 第4期, 2005, pp6-7

해서도 기대와 희망이 충만한 시기여서 <棄婦篇>에서 보이는 것처럼

慷慨有餘音. 비분강개한 소리는 여운이 있고
要妙悲且清. 가느다란 소리 슬프고도 맑네.
晚獲爲良實. 늦게라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
願君且安寧. 그대여 잠시 편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슬프지만 자연스럽고 품위가 있으며 오묘한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다.

後期の 작품 <浮萍篇>, <種葛篇>, <七哀>시 중에서는 확연히 버림받은 여인의 形象에 寄託하여 자신의 가슴 속의 우려와 원망을 토로하고 있다. 표현기법상 前期가 事實위주로 구성되어졌다면, 後期の 작품들은 허구와 현실과의 수준 높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⁵¹⁾ 그의 많은 後期 작품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현실의 실상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현실적 구성보다 훨씬 더 깊이 현실의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²⁾

前期의 <送應氏>와 後期の 작품인 <丹霞蔽日行>을 비교해 보면 前期 작품은 실제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垣牆皆頓擗, 담장은 죄다 부서지고 갈라지고
荊棘上參天. 가시나무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네.
不見舊耆老, 옛 노인들은 보이지 않고
但睹新少年. 다만 낫선 젊은이들만 보인다.

이처럼 현실생활의 形象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려내어 전쟁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後期の 작품인 <丹霞蔽日行>은 역사를 제재로 하여 개인의 회포를 토로한 咏史詩로서 商, 周, 秦, 漢의 역사적인 흥망성쇠의 감상을 서술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어느 왕조를 막론하고 혼란한 사회를 조성하고 학대를 일삼는다면 결국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51) <曹植前後詩歌比較>, 廣西師範大學學報, 研究生專輯, 1992,p27

52) <關於曹植女性題材的詩歌的解讀>, 山西農業大學 學報, 第6卷 第2期, 2007, p174

<送應氏>⁵³⁾

其一

步登北邙阪,
遙望洛陽山。
洛陽何寂寞,
宮室盡燒焚。
垣墻皆頓擗,
荊棘上參天。
不見舊耆老,
但睹新少年。
側足無行徑,
荒疇不復田。
游子久不歸,
不識陌與阡。
中野何蕭條,
千里無人烟。
念我平常居,
氣結不能言。

북망산 비탈을 걸어올라
멀리 낙양의 산들 바라보네.
낙양은 어찌 이리도 적막한가.
궁실이 모두 불타버렸네.
담장은 죄다 부서지고 갈라지고
가시나무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네.
옛 노인들은 보이지 않고
다만 낯선 젊은이들만 보인다.
발걸음을 옆으로 돌려 걸어도 길이 없고
황폐해진 밭은 더 이상 농사짓지 않는다.
집 떠난 나그네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밭 사이로 난 길 분간하지 못하리라.
들판은 어찌 이리도 쓸쓸한가.
천리에 사람 흔적 없구나.
지난날 친한 이들 생각하니
목이 매여 말도 할 수 없네.

其二

清時難屢得,
嘉會不可常。
天地無終極,
人命若朝霜。
愿得展嬾婉,
我友之朔方。
親昵并集送,
置酒此河陽。

태평 시절은 자주 만나기 어렵고
좋은 만남은 늘 있지 않다네.
천지는 다함이 없건만
사람 목숨은 아침 이슬 같다네.
원컨대 편안하고 순조롭게
나의 벗 북쪽으로 가기를.
친한 이들 모두 모여 전송하려고
이곳 강북 쪽에 술상을 차렸네.

53)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162-164

中饋豈獨薄,
賓飲不盡觴.
愛至望苦深,
豈不愧中腸.
山川阻且遠,
別促會日長.
愿爲比翼鳥,
施翻起高翔.

준비한 음식이 어찌 풍성하지 않으랴만
손님들은 술잔을 다 비우지 못하네.
사랑이 지극하면 바라는 것도 아주 많으니
어찌 내 마음 부끄럽지 않으리오.
산과 물 가로 막히고 멀기도 한데
이별은 임박하고 만날 날은 아득하여라.
원컨대 함께 나는 비익조 되어
날개 펼쳐 높이 날아오르고 싶네.

<丹霞蔽日行>⁵⁴⁾

紂爲昏亂.
虐殘忠正.
周室何隆.
一問三聖.
牧野致功.
漢祚之興.
階秦之衰.
雖有南面.
王道陵夷.
炎光再幽.
殄滅無遺.

주왕은 어리석고 무도하여
충성스럽고 바른 신하들을 해쳤네.
주 왕실은 얼마나 융성하였던가.
한 집에 성인이 세 분이 나셨네.
하늘도 천명을 바꾸었네.
한 고조가 일어난 것은
진 나라의 쇠락을 뒤이은 것이네.
비록 남쪽을 향해 황제를 일컬었지만
왕도는 쇠락하였네.
국운의 불빛이 재차 어두워지더니
홀연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네.

趙幼文은 “이 詩歌는 魏統治者들이 宗室을 멀리하여 결국에는 멸망할 위기에 처하리라는 암시로 일종의 諷刺的인 성격이 강하다”. 라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曹植의 後期 작품은 허구적인 구성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코 현실사회를 외면하지는 않은 듯하다.

曹植의 後期詩歌는 前期詩歌에 비해 抒情性 이외에도 思想性에 더욱 주목하고

54)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58-259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⁵⁾ 허구적인 구성으로 사실을 묘사하고 있으며, 허구와 사실을 결합하는 표현수법으로 하는 詩 세계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변화무쌍하고 오묘한 경지로 빠져들게 한다.

抒情的 觀點에서 접근해 보면 前期의 작품은 대다수가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하거나 눈앞의 情景에 의해 감흥을 상호 결합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後期에 그는 抒情을 묘사하는 수법을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우선 그는 比, 興의 수법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棄婦, 美女, 游仙, 咏物 등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浮萍篇>, <種葛篇>, <七哀>는 《詩經》 “氓之噬噬, 抱布貿絲”의 이러한 단순한 棄婦詩가 아니며, 曹植 자신의 처지를 허구적 形象을 통하여 자신의 슬픈 처지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浮萍篇>에서 “浮萍寄清水. 부평초는 맑은 물에 기생하여 隨風東西流.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흘러 다니네.” 여기에서 曹植은 자신의 뒤숭숭하고 불안한 당시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듯하다.

行雲有返期.	떠나는 구름은 돌아올 때가 있는데
君恩儻中還.	당신의 사랑도 혹시 중도에 돌아올까요.
慊慊仰天嘆.	원망스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노니
愁心將何愜.	근심스런 마음 장차 어디에다 하소연할까요.
日月不恒處.	세월은 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人生忽若寓.	인생이란 잠시 머무는 나그네살이랍니다.
悲風來入懷.	슬픈 바람 불어와 휘장에 불어드니
淚下如垂露.	눈물이 이슬 떨어지듯 흘러내리네.
發篋造裳衣.	바느질 상자를 열어 새 옷 만들려고
裁縫紈與素.	흰 깃과 명주로 재봉을 하렵니다.

이러한 개인의 처지에 대한 느낌과 우주관적 관념이 서로 융합되어

君恩儻中還. 당신의 사랑도 혹시 중도에 돌아올까요.

55) <曹植前後詩歌比較>, 廣西師範大學學報, 研究生專輯, 1992, p27

慊慊仰天嘆.

원망스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노니

청아하고 고결한 사상을 曹植 자신과의 융합을 통해서 자아를 표현해 낸 것일 뿐 버림받은 여인의 形象을 객관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다.

<美女篇> “佳人慕高義, 求賢良獨難. 衆人徒嗷嗷, 安知彼所觀”

<雜詩> “南國有佳人”, “時俗薄朱顏, 誰爲發皓齒”

理想과 現實, 個人과 社會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을 토로하는 슬픔은 曹植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당시 사회풍조와 시대적 아픔이기도 하다.

曹植의 부녀자를 주제로 한 詩歌들은 부녀자들의 정서를 대신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라, 曹植 자신의 形象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깊은 감동을 자아 내게 하며, 허구적인 구성으로 한 인물의 形象을 빌어 曹植 자신의 깊은 의식공간을 묘사해내고 있다. 이러한 작품세계 속에는 그의 영혼의 강렬한 정서적 분위기가 충만하며 이와 동시에 咏物과 咏史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노래하였다.

이처럼 抒情을 표현한 수법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曹植의 後期詩와 前期詩를 서로 비교해 보면 抒情性에 있어서 이미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前期 詩歌에서는 사물을 묘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서술하고자 할 때는 직접적인 서술 방식으로 표현돼 詩語의 사용과 形象의 묘사에서 그의 천재적인 기질이 잘 나타나 있다. <自馬篇>에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의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과 호탕하고 희망에 찬 원대한 포부를 엿볼 수 있다. 표현수법에 있어서는 직접적이고 사실위주로 표현하고 있으며, 조금도 비유나 은유의 느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後期작품에서는 확실하게 침착하고 깊이가 묻어나는 비극적 아름다움이 묻어있다.

曹植의 前期 詩歌에도 슬프고 가슴 아픈 심경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있다. 예를 들어 <送應氏>에서 전쟁의 참상이나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한 것이 있지만, 前期의 이러한 슬픈 감정은 단지 세월이 흘러감을 안타까워하는 것일 뿐 대부분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차다. 그러나 後期에 들어서서는 시대적, 사회적환경과 개인의 신세가 같이 융합되어 曹植 자신의 예술적 특성을 잘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曹植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 추구는 이상과 현실과의 커다란 괴리로 인해 슬퍼하고 원망하는 정서가 後期の 모든 詩歌마다 드러난다. 자신의 신세에 대한 슬픔이나 원망을 하고는 있지만, 怒하지 않은 정서이며 나라와 백성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 때로는 답답함과 울적함을, 때로는 원망하고 애통함을 진한 슬픈 감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七哀>를 예를 들면 이 詩歌는 전통적인 閨怨詩로서 규중에 있는 한 여인이 멀리 원정 나간 자신의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연민의 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詩歌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전통적인 규원시중의 남편을 그리워하는 形象은 성격상 다르다. 그는 단지 슬프게 자신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와 남편이 예전에 나눴던 부부간의 정을 회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曹植은 실제로 남편을 사모하는 한 부인의 形象을 빌어 남편을 사모하는 정을 은유적 수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외감에서 오는 아픔을 달래고자 하였다. 그는 비록 청년시절 정치적인 이상과 진취적인 기상과 포부는 버렸지만 결코 현실도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曹植의 詩歌 중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은 대부분 後期에 창작된 것으로 曹植의 비극적인 신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품을 잘 음미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56)

56) <曹植前後詩歌比較>, 廣西師範大學學報, 研究生專輯, 1992, p30

V. 女性 形象의 內容分析

詩歌는 함축미를 가지며, 극히 제한된 문자로 폭넓은 사회현실과 작가의 내심에 담고 있는 풍부한 감정세계를 표현해 내는 창작 활동이다. 이러한 形象을 이용하여 審美的인 묘사를 실천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름길이다. 曹植은 이러한 形象을 사용하여 현실세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寄託하여 자신을 비유하였으며, 그의 작품 중에 나타난 풍부한 감정은 曹植에 의해서 조성된 形象을 통하여 밖으로 발산되어졌다.

女性의 形象은 曹植의 詩歌 創作 중에서 지금까지도 학술계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形象은 대체적으로 하나는 “美女”, 또 다른 하나는 “怨婦”로 크게 양분된다. 여기에서 “怨婦”는 광의적 의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원한을 노래한 詩歌로 閨怨詩의 성격이 강하다. “美女”나 “怨婦”를 막론하고 이를 분석, 정리하는 과정에서 曹植의 詩歌 중에서 女性의 形象은 일부분은 사실이고, 다른 일부분은 寄託의 수법을 이용하여 曹植 자신을 비유한 것들이다.⁵⁷⁾

寫實的인 女性의 形象은 曹植의 前期作品 중에서 자주 나타나고, 비유적인 수법은 後期 詩歌에서 자주 출현한다. 이러한 것들은 曹植의 인생과 사상,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曹植의 유년시절은 부족함 없는 부유한 생활을 누렸으며, 위로는 부친의 총애와 아래로는 형제지간의 사이도 돈독하여 그의 詩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거침이 없었다. 曹丕가 황위에 즉위한 후 그는 종일 아주 험악한 환경에서 감옥이나 다름없는 연금생활을 하였다. 원대한 포부는 있으되 펼칠 기회가 없었다. (“圈牢之養物”, “抱利器而無所施”) 이러한 주위 환경의 변화는 그의 詩歌내용과 정감에서 이전과 다른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후반기 詩歌의 창작기법이 자주 모종의 사물에 寄託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유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曹植의 현존하는 詩歌 중 棄婦(怨婦), 思婦의 形象을 그린 작품은 십 여수가 있는데 <棄婦篇>, <種葛篇>, <浮萍篇>, <雜詩.西北有織婦>, <七哀詩>, <雜

57) <曹植女性題材作品前後期之比較>, 湘潭師範學院學報, 第19卷, 1998.3, p12

詩.攬衣出中閨>, <雜詩.高臺多悲風>, <雜詩.南國有佳人>, <美女篇> 등이다.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怨婦(棄婦)류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棄婦篇>, <出婦賦>, <種葛篇>, <浮萍篇>등 5篇이고, 思婦類에 속하는 것은 <雜詩.西北有織婦>, <七哀詩>, <雜詩.攬衣出中閨>등 3篇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棄婦詩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⁵⁸⁾ 思婦類에 속하는 작품들도 묘사된 여자들의 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떨어져 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사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다음은 ‘美女’와 ‘怨婦’, ‘思婦’의 形象을 구분해서 알아보자.

1. 美女의 形象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해 내는 것은 모든 文人들의 한결같은 주제이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감미로운 느낌, 더욱이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에 대한 묘사는 당시 모든 文人들이 구현해 내고자 한 대상이다.

예부터 오늘날까지도 중국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용모가 뛰어난 여인들은 文人들에 의해 그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닮아 뽑내는 形象은 수없이 묘사되어져 왔다. 일찍이 중국 최초의 詩歌집인 《詩經》에서도 女性의 아름다운 容貌와 姿態를 묘사한 작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國風 衛風>

手如柔荑	손은 부드러운 띠 싹 같고
膚如凝脂	피부는 영긴 기름같이 윤택하지요
領如蝤蠐	목은 흰 나무벌레 같고
齒如瓠犀	이는 박 씨같이 가지런하지요

58) <http://www.docin.com/p-683589132.html>

螭首蛾眉	매미 이마에 나방 같은 눈썹이고
巧笑倩兮	쌍극 웃는 예쁜 보조개
美目眇兮	아름다운 눈이 맑기도 하여라.

《詩經》뿐만 아니라 《楚辭》에서는 香草美人을 들어 자신의 인품이나 재능을 노래한 것이나 宋玉이 <登徒子好色賦>에서 미인의 形象을 묘사한 부분들은 사물에 빗대는 비유수법을 사용하였다.

<登徒子好色賦>

眉如翠羽,	눈썹은 마치 물총 새 깃털과 같고
齒如含貝,	이는 마치 오므린 조개와 같고
肌如白雪,	피부는 또한 흰 눈처럼 깨끗합니다.
腰若束素,	허리는 마치 비단 한필 묶어놓은 듯 하고
嫣然一笑,	어찌다 한번 자연스럽게 웃음 지으면
惑陽城,	양귀의 귀인들이 술렁대고
迷下蔡.	하채의 왕손들 정신이 혼미 하옵니다.

이처럼 미인에 대한 묘사가 進一步한 점이나 漢樂府에서 “采桑城南隅”에서 羅敷나 <孔雀東南飛>에서 劉蘭芝 등 美女의 形象을 묘사하는 수법이 나날이 풍부하고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孔雀東南飛>

足下躡絲履	발에는 비단 신 신고
頭上玳瑁光	머리에는 대모가 빛나고
腰若流紈素	허리에는 가는 명주가 흐르는 물처럼 곱고
耳著明月璫	귀에는 명월과 같은 귀고리
指如削蔥根	손가락은 하얀 파 줄기 같고

口如含朱丹
纖纖作細步
精妙世無雙

입은 붉은 진주를 머금은 듯하며
유연히 잔걸음으로 나아간다.
그 뛰어난 아름다움은 세상에 다시없다

曹植의 詩歌중에서 美女의 形象을 묘사한 主要 作品으로는 <美女篇>, <閨情有美一人>, <雜詩 南國有佳人> 등이 있으며, 순수하게 여인의 미모나 자태 등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묘사하기보다는 대부분 작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미모의 여자 形象을 빌어 작가 자신의 신세를 나타내고 있다. 曹植은 <南國有佳人>중에서 비유와 寄託의 수법으로 한 아름다운 여자가 世人에 의해 버림받는 현실을 통해 덧없는 세월을 한탄하며 젊은 청춘이 한 순간 지나갔음을 애통해 하는 形象으로 자신의 웅대한 뜻을 펼쳐 보일 수 없는 애통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南國有佳人>

南國有佳人，
容華若桃李。
朝游江北岸，
夕宿瀟湘沚。
時俗薄朱顏，
誰爲發皓齒？
俯仰歲將暮，
榮耀難久恃。

남쪽나라에 가인이 있어.
얼굴이 복숭아꽃 오얏 꽃처럼 예쁘다네.
아침에는 장강 북쪽언덕을 노닐다가.
저녁에는 소수와 상수 물가에서 잠자네.
세상이 아름다운 이를 박대하니.
누구를 위해 하얀 이 드러내랴.
잠깐사이에 한해가 저물어 가니
아름다운 모습 오래 지니기 어렵구나.

이 작품은 曹植의 생애 중 후반기에 지어진 것으로 구성이나 창작 수법이 屈原의 辭賦 중에 등장하는 香草美人의 창작수법과 대단히 흡사하다. 비유수법을 사용한 것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에게 비유하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표현한 것들에서 알 수 있다.

이 詩歌의 앞 4구는 중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언어의 사용이 간명하고 거침이 없다. “南國佳人”의 용모를 마치 아름다운 복숭아꽃에 비유하여 묘사했으며, 그

의 족적은 “江北”과 “瀟湘”을 오가며 총총히 하루 종일 분주히 왔다갔다 하며 부르는 그녀의 감미로운 소리는 넓은 강 남북에 울려 퍼지네. 라고 서술하고 있다. 詩歌의 후반 네 구는 자신의 감회를 토로하고 있다. “時俗薄朱顏，誰爲發皓齒” 이 두 구는 작품의 예술적 매력이 아주 뛰어나며 간명하고 강직하다는 느낌을 준다. 제한된 언어이지만 그 의미는 깊고 함축미가 돋보이며 상쾌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두 구는 표면 상으로는 뛰어난 미모와 아름다운 노래의 재능을 갖고는 있지만 도리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이 없어서 이러한 글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는 아픔과 고뇌를 나타내고자 했다. 마지막 2구는 세월의 덧없음과 무정함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한 여인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을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빌어 자신의 어린 시절에 품었던 기상과 원대한 포부를 발휘할 기회가 없음을 깊이 한탄하는 내용이다. 59)

曹植의 後期 詩歌 중 가장 대표적인 ‘美女’의 形象이 잘 나타난 작품은 바로<美女篇>이라고 말할 수 있다. <美女篇>은 꽃다운 한창 나이에 혼기에 찬 여자가 시집가지 못해 탄식하는 상황을 통하여 형인 曹丕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과 이상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자신의 아픔을 미인의 形象에 寄託하여 묘사하고 있다.

<美女篇>⁶⁰⁾

美女妖且閑，	미녀는 예쁘고 조용한데
采桑歧路間.	갈림길에서 뽕을 따네.
柔條紛冉冉，	부드러운 가지는 어지러이 흔들리고
落葉何翩翩.	떨어지는 잎은 어찌 이리 羅數끼는가.
攘袖見素手，	소매를 걷으니 하얀 손 보이는데
皓腕約金盃.	흰 팔뚝에는 금팔찌를 끼었네.
頭上金爵釵，	머리에는 참새 모양 금비녀 꽂고

59)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10

60)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50-252

腰佩翠琅玕。
 明珠交玉體，
 珊瑚間木難。
 羅衣何飄飄，
 輕車隨風還。
 顧盼遺光采，
 長嘯氣若蘭。
 行徒用息駕，
 休者以忘餐。
 借問女安居，
 乃在城南端。
 青樓臨大路，
 高間結重關。
 容華耀朝日，
 誰不希令顏。
 媒氏何所營，
 玉帛不時安。
 佳人慕高義，
 求賢良獨難。
 衆人徒嗷嗷，
 安知彼所觀。
 盛年處房室，
 中夜起長嘆。

허리에는 푸른 구슬을 찻네.
 밝은 구슬을 옥 같은 몸에 차고
 산호가 목란 구슬에 섞여있네.
 비단옷은 어찌 이리도 날리는가.
 가벼운 옷자락은 바람 따라 펄렁이네.
 돌아보면 맑은 눈빛 넘쳐나고
 길게 휘파람 불면 숨결은 난초 같은 향기 나네.
 길 가는 사람은 그녀를 보고 수레 멈추고
 쉬던 사람은 이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잊는다.
 그녀가 어디에서 사는가를 물으니
 성 남쪽 끝에 산다고 하네.
 청루는 대로변에 있고
 높은 문은 겹겹이 닫혀있다.
 꽃다운 얼굴은 아침 햇살 같이 빛나니
 그 누가 아름다운 얼굴 흠모하지 않으랴.
 중매쟁이는 무슨 일로 바쁘기에
 옥과 비단으로 제때 정혼을 주선 않나.
 아름다운 여인은 지조 높은 이를 사모하여
 훌륭한 사람 찾지만 정말 유난히 어렵구나.
 못 사람들 부질없이 야단들이지만
 그녀가 바라는 것을 어찌 알 것인가.
 꽃다운 나이에 방에만 있으면서
 한밤에도 일어나 길게 한숨짓네.

曹植의 名作 <美女篇>은 아리따운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반려자를 구하지 못해 나이가 차도록 출가하지 못한 처지를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비유한 대목으로 젊은 날의 시간들이 덧없이 지나갔음을 안타깝고 찻잡한 심정으로 묘사하고 있다.⁶¹⁾ 曹植은 나라를 보위하고 나라를 위

61)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50

해 큰 공을 세우기를 원했으나, 이러한 그의 이상은 정작 형인 曹丕의 억압과 질시로 인하여 실현하지 못했으며 비록 관직은 받았으며 한낱 힘없는 관직일 뿐이었다. 더욱이 질시와 핍박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자신의 신세를 아리따운 여인의 形象에 寄託하여 자신의 아픔과 한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詩歌 중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와 기품을 잘 묘사해 냈는데, 이는 曹植 자신의 재능과 인품을 비유한 것으로 여인의 몸에 장식한 화려한 장신구는 자신의 아름다운 덕행을 이러한 아름다운 사물에 寄託하여 묘사한 것이라 하겠다. 이 여인은 외모와 내적인 아름다움이 다 갖추어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고독히 깊은 규중에 기거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찌하여 그는 시집을 가지 못하는가? 여기에서 그는 “求賢良獨難”(훌륭한 배필을 원하지만 구하기가 어렵구나.) 이는 皇帝인 형 曹丕가 자신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중용할 마음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황제 주변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형인 曹丕에게 천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비유한 것이라 하겠다.

曹植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만나지 못한 것은 직접적으로 황제를 빗대어 말하지 않고 황제 주변 사람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첫째로 그가 황제에게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이고 둘째 당시에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고관들의 추천이 있어야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여인이 시집을 가지 못한 주요한 이유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배필을 추천해 주지 않은 서운한 감정을 曹植은 자신의 처지를 이 여인에게 寄託하여 서술하고 있다. 曹植은 위나라 황실자손으로서 그 신분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통치계급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압과 멸시를 받으며 관직에 중용되지 못한 것을 “求賢良獨難”로 표현하며 탄식하고 있다. “衆人” 4구에서 말하는 이 주위 사람들은 미인의 내적 슬픔과 괴로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이미 혼기가 다 되어도 규방에 홀로 기거하며 탄식하는 이유를 曹植 자신이 정치적으로 중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과 질시를 받는 현실에서 자신의 무기력으로 인한 슬픈 심경을 토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여인의 形象을 빌어 자신의 처지와 괴로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깊은 정치적 실의와 인생의 슬픔을 여인의 슬픔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시의 창작수법은 중국古代詩歌의 전통수법인 《詩經》과 《楚辭》를 많이

인용하였다.

<美女篇>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하여 자신의 포부와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아름다운 여인이 시집가지 못한 처지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함을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내용은 완곡하게 함축되어 있고 의미는 심오하고 깊은 숨意在 숨겨져 있다. 사실 美女를 빌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이상과 포부에 대한 열망이며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세계에 대한 원망과 괴로운 심경을 서술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로 清代 王堯衢가 말하기를 “子建求自試而不見用，如美女之不見售，故以爲比。”(曹植은 스스로 재능을 가졌으나 크게 중용되지 못했다.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좋은 남편감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비유했다.)⁶²⁾라고 쓰고 있다. 이 詩歌의 언어는 화려하고 정교하며 묘사가 아주 자세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形象을 묘사한 것으로써, 이 작품을 두고 또 다른 평론가들은 <美女篇>은 의미가 깊고 의미심장하며 음절의 품격이 모두다 극히 자연스럽다.⁶³⁾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천고의 걸작이라고 말하는 데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의 이러한 종류의 여인의 形象을 묘사한 작품은 漢代 樂府 작품 속에서도 다수가 보인다. 그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陌上桑>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曹植의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前代 작품들의 내용이나 표현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曹植에 의해 이러한 前代의 작품들을 계승 발전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陌上桑>은 漢代 樂府 民歌 중 뛰어난 서사시의 희극적인 수법으로 표현되어 통치계급의 문란하고 사치스런 생활을 묘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리따운 용모와 정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농촌의 女性 形象으로 그려 내고 있다.

<陌上桑>

日出東南隅，

해는 동남쪽에서 떠올라

62) 清代 王堯衢. <古唐詩合解. 卷三>

63) 元代 劉履評論 <美女篇>, 《選詩補注》卷二

照我秦氏樓。
 秦氏有好女，
 自名爲羅敷。
 羅敷善蠶桑，
 采桑城南隅。
 青絲爲籠系，
 桂枝爲籠鉤。
 頭上倭墮髻，
 耳中明月珠。
 綳綺爲下裙，
 紫綺爲上襦。
 行者見羅敷，
 下担捋髭須。
 少年見羅敷，
 脫帽著幘頭。
 耕者忘其犁，
 鋤者忘其鋤。
 來歸相怨怒，
 但坐觀羅敷。
 使君從南來，
 五馬立踟躕。
 使君遣吏往，
 問是誰家姝？
 秦氏有好女，
 自名爲羅敷。
 羅敷年幾何？
 二十尚不足，
 十五頗有餘。
 使君謝羅敷

진씨네 누각을 비추네.
 진씨에게 예쁜 딸 있어
 스스로 나부라 불렀네.
 나부는 양잠을 좋아하여
 성각 남쪽 모퉁이에 가 뽕을 따다네.
 푸른 실로 광주리 끈 만들고
 계피나무 가지로 광주리 고리 달았지.
 머리에는 느지막이 쪽진 머리
 귀에는 명월 주를 달았네.
 담황색 비단 치마 만들고
 자홍색 비단 저고리 지었다네.
 행인들은 나부를 보고
 수염을 어루만지고.
 소년은 나부를 보고
 관 벗고 망건 만지며.
 밭가는 사람 쟁기도 잊어버리고
 김매던 이는 호미를 잊었다네.
 돌아가 화를 내는 건
 나부를 보았기 때문이라지.
 사또가 남쪽에서 오다가
 수레 멈춰 머뭇거리네.
 사또는 아전을 보내
 누구네 집 아가씨인지 물었네.
 진씨네 고운 따님인데
 이름이 나부라고 합니다.
 나부의 나이는 몇 살인가 하니
 아직 스물이 안 되었지만.
 열다섯은 넘었습니다. 하니
 사또는 나부에게 물었네.

寧可共載不？
 羅敷前致辭
 使君一何愚
 使君自有婦，
 羅敷自有夫。
 東方千餘騎，
 夫婿居上頭。
 何用識夫婿？
 白馬從驪駒
 青絲系馬尾，
 黃金絡馬頭
 腰中鹿盧劍，
 可值千萬餘。
 十五府小吏，
 二十朝大夫，
 三十侍中郎，
 四十專城居。
 爲人潔白皙，
 鬢鬢頗有須。
 盈盈公府步，
 冉冉府中趨。
 坐中數千人，
 皆言夫婿殊。

차라리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나부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사군님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사군은 부인이 있으시고
 나부는 남편이 있사옵니다.
 동방에 천여기를 거느리고
 남편은 그 우두머리입니다.
 어찌 남편인 줄 아느냐면
 백마가 검은 말 거느리고
 푸른 실로 말꼬리 묶었도다.
 황금 두락 두르고
 허리에 녹로 검을 찻도다.
 값이 천만 금도 넘으리니
 열다섯에 태수부의 소사가 되었고
 스물에 조정의 대부가 되었지요.
 서른에 시중랑,
 마흔에 성을 차지하였습니다.
 사람됨이 고결하고 명석하며
 수염이 덩수룩하고
 점잖게 부중을 걸어 다니고
 부중을 부지런히 다니 시도다.
 좌중의 수천 사람들이
 모두 남편이 훌륭하다 말한답니다.

작자는 羅敷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녀의 생활환경을 그리고 있으며, 그녀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머리 장식모양과 그가 지니는 장신구 등을 그려내고 있다. 이 詩歌에서는 側面 묘사를 통해 주요 사물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있다. 이 작품은 주위 사람들이 羅敷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났을 잃고 바라보는 모습과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취하는 상

황을 묘사 하고 있다.

詩歌의 언어 선택이 신선하고 언어의 함축과 유머러스한 정서가 숨겨져 있어 많은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애송하고 있다. 曹植의 <美女篇>에서 묘사된 대상과 표현기법은 기본적으로 <陌上桑>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표현 수법은 같을지 모르겠으나, 표현해 내고자하는 사상과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陌上桑>은 羅敷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면서 한편으로 사군 앞에서 羅敷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통치자들이 여자를 경멸하는 시각에 날카로운 조소를 보낸 반면 <美女篇>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와 용모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면서 그가 홀로 규중에 기거하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인 자신의 초라한 신세를 한탄하는 정서를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 <美女篇>에서 주인공은 아름다움과 기품을 지녔으면서도 홀로 규방에 기거하는 까닭이 고결한 인품을 가진 반려를 사모하는 이상형이 자기 앞에 나타나 주기를 염원하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인은 詩歌 중에 묘사된 주인공의 形象이 고결한 기품을 갖춘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시인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염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우리가 작가의 생애와 원대한 포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여주인공의 形象의 의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詩歌의 묘사기법을 비교하면 <陌上桑>보다 <美女篇>이 확연히 깊은 含意와 높은 표현기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陌上桑>은 羅敷의 외모 묘사에서 볼 때 단지 그의 의상이나 장신구 등 외적인 묘사에 치중하면서 주위사람들의 반응에 寄託하는 표현기법을 구사한 반면, <美女篇>에서는 미인의 의상과 동시에 생동감 넘치는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와 形象을 더욱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고, 언어의 운용상에서도 詩語마다 깊은 含意를 지니면서 시인이 이 여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詩歌에서 보듯 표현 수법에 있어서는 樂府詩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樂府의 이와 같은 작품들은 중국문학상 전형적인 의의를 갖는다. 曹植은 詩歌 창작활동에 있어서 前代의 이러한 종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詩經》에서 이러한 형태의 여인의 形象을 주제로 한 작품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曹植의 작품 속 女性의 形象은 실제인물도 등장하기에 현실적인 의의를 지니기도 한다.

《楚辭》중에서 이런 女性 形象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女性의 形象을 비유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우수한 수양과 品德,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픔을 묘사해 내고 있다.⁶⁴⁾

曹植의 작품 중에서 女性의 形象은 《楚辭》의 전통도 계승하고 있다. 《楚辭》와 다른 점은 曹植의 작품은 女性의 비애를 중시하여 묘사되고 표현기법상 아주 완곡한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曹植은 보기 드문 천재적 재능을 가진 문학자이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오히려 굴곡이 심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曹植과 曹丕는 형제지간이면서 군신지간으로서, 曹丕는 그를 꺾박하고 결코 정치적으로 중용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갖은 구실로 제거할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작품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과 가슴 속 고뇌를 토로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曹丕와의 특수한 관계로 말미암아 曹植의 詩歌는 단지 완곡하게 감추어진 방식으로 자기의 정서를 표현해낼 수밖에 없었다. 曹植의 입장에서 보면 전대의 예술적 문헌들을 탐독하는 데 당시 환경적, 시간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당시 사회는 군신의 엄격한 의식이 존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자의 새로운 창작기법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토양이 되었을 것이다.

寄託표현 방식은 당시 작자의 심정과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써 작자가 처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길을 걷게 했으며, “胸中壘塊” 이뿐만이 아니라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曹植은 당연히 관심을 끄는 인물로서 그의 신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인 曹丕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다. 단지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여인이나 술을 빌어 자신의 심정을 묘사해 내곤 하였다. 어쨌든 曹植의 이러한 여인의 形象에 寄託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현실처지를 묘사하는 창작활동은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개척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⁶⁵⁾ 할 것이다. 曹植의 前期

64) 〈論曹植對中國詩歌的三大貢獻〉, 涪陵師範學院學報, 第18卷 第1期, 2002. 01, p66-68

에는 가없는 여인의 形象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名都篇>66)

名都多妖女,
京洛出少年.
宝劍值千金,
被服麗且鮮.
斗鷄東郊道,
走馬長楸間.
馳騁未能半,
雙兔過我前.
攬弓捷鳴鏑,
長驅上南山.
左挽因右發,
一縱兩禽連.
餘巧未及展,
仰手接飛鳶.
觀者咸稱善,
衆工歸我妍.
歸來宴平樂,
美酒斗十千.
膾鯉膾鮓蝦,
炮鼈炙熊蹯.
鳴儔嘯匹侶,
列坐竟長筵.
連翩擊鞠壤,

이름난 도읍에는 美女도 많고,
수도 낙양에는 소년도 많다.
보검은 값이 천금이나 되고
옷은 화려하고도 곱다.
동쪽 교외 길에서 닭싸움하고
긴 개오동나무 사이로 말을 달린다.
말을 달려 반도 오지 못했는데
한 쌍의 토끼가 내 앞을 지나간다.
활을 손에 쥐고 소리 내는 화살을 쫓고
멀리 내달려 남산으로 올라간다.
왼쪽으로 당겨 오른쪽으로 쏘아
한 번 쏘아 두 마리 맞춘다.
남은 재주 미처 다 발휘하지 않았는데
손을 들어 나는 술개를 맞춘다.
보는 사람들이 모두 잘한다 말하고
여러 사냥의 명수들도 내 기술 뛰어나다 칭찬한다.
돌아와 평락관에서 연회를 베푸니
좋은 술은 한말에 만 냥이나 하네.
잉어회와 알벤 새우 죽
자라구이와 곰 발바닥 구이가 있네.
친구 동료 불러 모아,
열 지어 앉으니 긴 대자리에 가득 차네.
격국과 격양놀이가 잇달아 펼쳐지니

65) <淺論曹植詩歌的形象寄托手法>, 張家口技術學院學報, 第18卷 第4期, 2005.5, p39

66) 이치수·박세욱·윤희,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44-246

巧捷惟萬端.	교묘하고 민첩한 재주 많기도 많다.
白日西南馳,	해는 서남으로 달리고
光景不可攀.	햇빛은 잡아들 수가 없네.
雲散還城邑,	구름처럼 흩어져 성안에 돌아가지만
清晨復來還.	내일 새벽이 되면 다시 또 돌아오리라.

이 詩歌의 제작 시기는 前期와 後期 두 가지 설이 다 존재한다. 하나는 曹植의 청년기 작품으로서 建安時期에 자신을 포함한 낙양의 귀공자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묘사한 것이라는 설이고,⁶⁷⁾ 다른 하나는 낙양 소년들의 사치스런 호화생활을 근거로 한다면 建安時期나 黃初 시기에는 이러한 호사하고 사치스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시기라는 점이다.⁶⁸⁾ 그 이유로는 董卓에 의해 낙양이 완전히 황폐해버린 시기라서 이렇게 사치스런 생활이 불가능 했으리란 점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太和년간 曹植이 낙양에 들어와 사망하기 몇 년 전에 창작되어진 작품이라는 설이다. 曹植이 公元211年(建安十六年)에 지은 <送應氏>에서 당시 낙양성이 처참히 부서진 광경을 이렇게 묘사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洛陽何寂寞, 宮室盡燒焚, 垣墻皆頓擗, 荊棘上參天.” 曹植의 後期 작품이라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

이 詩歌는 서사시이지만 시인의 묘사나 서사에 있어서 詩語의 선택이 매우 신중하다. 사냥과 연회를 주요 일과로하면서 다른 놀이 즉 닭싸움이나 말 경주 등 소년의 하루 일상을 간략히 언급한 부분에서는 편집상의 구상이 돋보인다.

시인은 “馳騁未能半”에서 “衆工歸我妍”까지 十句는 소년의 능숙한 사냥솜씨를 생동감 있게 직접 보고 듣는 것처럼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餘巧未及展, 仰手接飛鳶” 二句는 뛰어난 활 솜씨를 꾀꾀한 소년의 形象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觀者咸稱善, 衆工歸我妍”에서는 소년의 활솜씨와 사냥솜씨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장면을 상세하게 서술한 점은 <陌上桑>에 등장하는 여인 羅敷의 美貌를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찬미를 통해서 묘사한 부분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67)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44

68) <曹植女性題材作品前後之比較>, 湘潭師範學院學報, 第19卷, 1998年 第2期, pp13-14

이 작품은 樂府시의 기본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樂府詩로서 당대 杜甫, 白居易 등 樂府詩 창작활동의 효시가 되었으며, 漢代 樂府의 전통을 계승하였다.⁶⁹⁾ 서술방식의 전개와 예술形象의 묘사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내는 방식들은 모두 寄託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 詩歌에서 시인은 복장이나 행동 등을 한 洛陽 소년의 形象을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구에서는 “名都多妖女, 京洛出少年”, 여기에서 “妖女”는 여자의 요염하고 곱고 아름다운 자태를 형용한 것으로써,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妖女”는 일종의 대치적 수법을 사용하여 “京洛少年”을 유도해내고 있다. <名都篇>에서 “妖女”는 사대부 집안 자제들의 호사스런 생활을 전면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시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는 보조적인 작용에 국한된다.

<閨情 有美一人>과 비교해서 보면 여기에서 여인의 形象은 조연 역할을 넘어 용모 자체를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閨情 二>⁷⁰⁾

有美一人.	아름다운 한 사람 있어
被服織羅.	가는 실 비단옷을 입고 있네.
妖姿艷麗.	아리따운 자태 곱고
蓓若春華.	봄꽃 같이 활기 넘치네.
紅顏韡燁.	꽃다운 얼굴 환하게 빛나며
雲髻嵯峨.	구름 같은 쪽진 머리 우뚝 높구나.
彈琴撫節.	금을 타며 박자 맞추고.
爲我弦歌.	나를 위하여 노래도 부르네.
清濁齊均.	청음과 탁음이 고르며
既亮且和.	그리 분명하면서도 박자에 잘 맞네.
取樂今日.	오늘은 즐거움만 누릴 뿐.
遑恤其它.	다른 것은 걱정할 겨를 없네.

69) <漢魏六朝詩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2年 9月版, p261

70)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02

여기에서는 미인의 용모, 머리모양 장신구, 자태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雜詩 南國有佳人>, <美人篇>에도 자주 나타나 있다. 曹植의 작품 중에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들은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形象들이다.

위 詩歌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한 여인이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아리따운 용모와 뛰어난 거문고 타는 솜씨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 하고 근심을 잊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기 적절히 즐기면서 세월의 무상함과 짧은 인생의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를 묘사한 것일 뿐 寄託하여 비유하는 수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 棄婦(怨婦)의 形象

曹植의 작품 가운데는 가정생활을 토대로 女性을 形象화한 작품이 적지 않다. 한나라 시대 부녀자들의 지위나 활동범위는 단지 가정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女性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은 대부분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曹植 또한 동시대의 가정생활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작품이 결혼한 여자가 가정생활 중 제한된 사회생활 속에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은 물론 전심을 다해 남편을 섬기는 모습이 다수 묘사되었다. “有子月經天，無子若流星” <棄婦詩>에서 알 수 있듯이 봉건시대에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부녀자들이 버림을 받는 것은 당시 사회풍조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으며, 가없는 여인의 이러한 심정을 “晚獲爲良實，願君且安寧” <棄婦詩>에서 간절히 담아내고 있다.

이렇듯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인은 改嫁하지 않은 채 차가운 밤에 정조를 지키며 홀로 기거하면서, 애절하게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고 있다. “願爲西南風，長逝入君懷” <七哀詩>. “歡愛在枕席，宿昔同衣衾” <種葛篇> 怨婦의 形象은 남편과 관련해 다양한 사유에 기인한다. 신혼생활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의 세월이 지나 남편의 변심으로 인해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는 신세가 된

후에도 여전히 부부의 정을 끊지 않고,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애절한 여인의 심정을 그린 詩歌 작품이나,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나이가 들어 남편의 총애를 잃은 후 버림받은 여인이나, 당시 부역이나 전쟁으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부역지에서 새 부인을 얻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된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남편에 의해 버림받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만은 분명하다.

<出婦賦>71)

妥十五而束帶,	첩은 15세에 혼례를 올리고
辭父母而適人.	부모님을 이별하고 시집가서,
以才薄之陋質,	얕은 재주와 남루한 자질로,
奉君子之清塵.	군자 같은 서방님을 만들었네.
承顏色以接意,	안색을 살피서 뜻에 맞추려하지만,
恐疏賤而不親.	서툴고 천하여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웠네.
悅新婚而忘妾,	신혼 때는 즐거웠으나 이 몸을 잊으셨으니,
哀愛惠之中零.	사랑과 은혜 도중에 시늬이 슬프네.
遂摧顏而失望,	결국 좌절하고 실망하여,
退幽屏于下庭.	물리나 아래채에 몸을 감추었네.
痛一旦而見棄,	애통하게도 하루아침에 버림을 당하여,
心忉忉以悲惊.	조리는 마음에 슬프고도 놀랍네.
衣入閭之初服,	시집올 때 옷을 입고,
背床室而出征.	침실을 버리고 떠나가네.
攀僕御而登車,	마부를 잡고 수레에 오르니,
左右悲而失聲.	주위 사람들 슬퍼하며 할 말을 잊네.
嗟冤結而無訴,	아! 이 억울함 하소연 할 바 없어,
乃愁苦以長窮.	근심과 고민은 극에 달했네.
恨無愆而見棄,	허물도 없이 버림받은 것이 한스럽고,

71)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85-87

悼君施之不終.

남편 사랑 끝까지 못 다하여 슬프네.

이 작품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의 구슬픈 泣訴와 한에 대한 자신의 동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感婚賦>와 마찬가지로 작가 자신은 버림받은 부인으로 남편은 임금인 曹丕에 비유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소재로 창작된 작품으로는 <種葛篇>, <浮萍篇>을 들 수 있다. 형식은 정형화된 6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격구로 압운하며 4차례의 換韻이 있다.⁷²⁾

이 詩歌는 한 여인이 남편에 의해 버림받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문두에는 남편과의 결혼과정을 서술하였다. 성심성의로 다하여 남편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에 의해 버림을 받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詩歌의 중간에는 무정한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버림받은 고통 그리고 삶의 애환을 담고 있다. 가끔은 후회하며 스스로 자책도 하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사람의 심경을 감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 詩歌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漢代 儒家思想의 융성으로 인해 男尊女卑思想이 팽배했던 시기이다. 봉건주의시대에 女性의 역할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 남성위주의 사회활동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처지는 집안과 사회적 풍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비록 부부지간의 금슬이 좋을지라도 부인이 아기를 못 낳거나 혹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에 의해 총애를 잃게 되면 내쫓기는 신세로 전락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로 말미암아 漢魏 時代에는 부인을 이런 저런 이유로 내쫓는 사회적인 풍조현상이 흥성하였다.⁷³⁾

漢樂府 중에는 이렇게 버림받은 부인의 원망을 주제로 한 詩歌들이 많이 출현하였으며, 예를 들어 <上山采蘼蕪>, <有所思>, <怨歌行>등은 그 당시의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曹植은 직접적으로 漢樂府의 현실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또한 그는 작품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을 버림받은 여자에게 寄託하여 깊은 동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曹植의 後期 詩歌中에서 “怨婦” 形象은, <怨歌行>과 <文選>의 <七哀>중의 思

72) 이치수, 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85

73) 論曹植, <怨婦詩>, 內蒙古農業大學學報, 2007 第1期, 第9卷, p311

婦形象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다.⁷⁴⁾ 이런 종류에 속한 시에는 주로 <棄婦詩>, <種葛篇>, <浮萍篇>등이 있다.

<怨歌行>⁷⁵⁾

爲君既不易.	임금 노릇 쉽지 않거니와
爲臣良獨難.	신하 노릇 진실로 유독 어렵기만 하네.
忠信事不顯.	충성과 믿음의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乃有見疑患.	도리어 의심받는 우환이 있게 되네.
周公佐成王.	주공(周公)이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보좌하여
金縢功不刊.	금 궤짝에 담긴 글의 공로는 말살할 수 없네.
推心輔王室.	충심으로 왕실을 보좌하였건만
二叔反流言.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은 도리어 유언비어 퍼뜨렸네.
待罪居東國.	처벌을 기다리며 동쪽 지방에 살 때
泣涕常流連.	눈물이 늘 끊임없이 흘러내렸다네.
皇靈大動變.	하느님이 큰 재난 일으키시니
震雷風且寒.	우레 치고 바람 불고 날씨 차가웠네.
拔樹偃秋稼.	나무를 뽑아버리고 가을 농작물 다 쓰러져 버리니
天威不可干.	하늘의 위엄을 범할 수가 없었네.
素服開金縢.	성왕의 흰옷 입고 금 궤짝을 열어다가
感悟求其端.	비로소 깨달으며 일의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네.
公旦事既顯.	주공의 일이 이미 드러나자
成王乃哀嘆.	성왕은 슬퍼하며 탄식하였네.
吾欲竟此曲.	내 이 노래를 마치려고 하니
此曲悲且長.	이 노래 슬프고도 길도다.
今日樂相樂.	오늘 즐거움을 서로 즐기며
別後莫相忘.	이별한 뒤라도 서로 잊지 맙시다.

74) <曹植前後詩歌比較>, 廣西師範大學學報, 研究生專輯, 1992, pp28-29

75)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59-261

曹植의 작품 “怨婦”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棄婦詩>가 있다. 여기서는 <棄婦詩>를 바탕으로 버림받은 여인의 형상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 방면의 詩歌는 버림받은 아녀자의 아픔과 슬픔을 많이 반영하였다. 이런 종류의 작품들의 정감은 대개 버림받은 여인의 불행과 현실사회의 무정한 현상을 분노하며 동정한다.⁷⁶⁾ 그러기에 曹丕의 시기와 질투, 견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능과 포부를 펼칠 수 없음을 원망하고 비통한 감정이 숨겨져 절제돼 나타나는 것이다.

<棄婦詩>⁷⁷⁾

石榴植前庭.	석류를 앞뜰에 심었더니
綠葉搖縹青.	푸른 잎은 바람에 파르스름 흔들리고
丹華灼烈烈.	붉은 꽃은 불타듯 무성한데
璀璨有光榮.	찬란하게 눈부신 그 빛.
光榮曄流離.	눈부신 그 빛 유리처럼 반짝이니
可以戲淑靈.	맑은 영혼 깃들만 하네.
有鳥飛來集.	새 한 마리 날아와 나무에 깃들이더니
拊翼以悲鳴.	날개를 두드리며 슬피 우네.
悲鳴夫何爲.	슬피 우는 것은 무엇 때 文人가
丹華實不成.	붉은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네.
拊心長嘆息.	가슴을 치며 길게 탄식하니
無子當歸寧.	자식이 없으면 친정집에 돌아와야 하네.
有子月經天.	자식 있는 사람은 달이 하늘에 떠서 가는 것과 같고
無子若流星.	자식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별과 같으니
天月相終始.	하늘과 달은 언제나 함께 있지만
流星沒無精.	떨어지는 별은 빛이 없어져 버리네.
栖遲失所宜.	살아가면서 마땅한 것을 제대로 못 하면
下與瓦石并.	비천해져 기와나 돌맹이 같게 되네.

76)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4

77)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317-319

憂懷從中來.	시름이 가슴 속에서 솟어나니
嘆息通鷄鳴.	탄식하다 닭이 우는 때에 이르렀네.
反側不能寐.	뒤척이며 잠 못 이루어
逍遙于前庭.	앞뜰에서 서성이네.
踟躕還入房.	배회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니
肅肅帷幕聲.	확확 휘장 소리만이 울리네.
牽帷更攝帶.	휘장을 걷어 다시 띠를 매고
撫節彈鳴箏.	현을 눌러 쟁을 타네.
慷慨有餘音.	비분강개한 소리는 여운이 있고
要妙悲且清.	가느다란 소리 슬프고도 맑네.
收淚長嘆息.	눈물을 거두고 길게 탄식하니
何以負神靈.	내 어찌 신비한 채의 호의 저버릴 수 있겠는가.
招搖待霜露.	계수나무는 서리와 이슬을 기다리니
何必春夏成.	어찌 굳이 석류처럼 봄여름에 열매 맺을 필요 있을까.
晚獲爲良實.	늦게라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
願君且安寧.	그대여 잠시 편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棄婦詩>는 자식을 낳지 못하여 버림받은 여인네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처음 10구는 석류꽃은 화려하나 열매를 맺지 않아서 슬피해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의 용모는 아름다우나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拊心長嘆息”(가슴을 치며 길게 탄식하니) 이는 자식이 없어서 버림받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有子月經天”(자식 있는 사람은 달이 하늘에 떠서 가는 것과 같고), “無子若流星”(자식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별과 같으니) 이것은 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상대적으로 대조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 버림받는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버림받은 여인의 복잡한 심정은 아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憂懷從中來”(시름이 가슴 속에서 솟어나니) 이것은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 못하고 엇치락뒤치락 무료함을 달랠 길이 없고 하소연을 하고싶어도 할 곳이 없으니 고통스럽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어 한밤중에 일어나 배회를 하고 현을 뜯으니 그 가야금소리 처량하고 슬프다.

피리는 슬피 울고 사람은 탄식하고 그 목소리 처량해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른다. 사람으로 하여금 애끓는 전경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하다. 마지막 6구는 스스로 눈물을 거두고 뒤돌아보며, 사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전히 자기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남편이 서둘러 자기를 버리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시는 방금 버림받은 여인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같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복잡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내용은 이러한 실의에 잠겨 방황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연민의 정이 불현듯 생겨나게 한다.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세 가지 불효가 있는데, 가장 큰 불효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漢魏 時期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부모와 조상들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일로 여겨졌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법으로도 내쫓김을 당해도 정당한 이유가 되었다.⁷⁸⁾

통치계급은 물론이고 일반평민들도 대를 잇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은 통치계급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로, 이로 인해 <棄婦詩>안에 버림받은 여인이 비록 하늘을 원망할지라도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것처럼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방황하면서 마음속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봉건윤리 제도 하에 부녀자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결국 曹植은 이러한 시를 통해서 깊은 사상의 주제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 詩歌인 <種葛篇>중에는 나이가 들어 남편에 의해 버림받은 여자의 비통하고 처량한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往古皆歡遇,	옛날부터 부부란 기쁘게 서로 만나거늘
我獨困于今.	지금은 나만 홀로 곤경에 처했네.
棄置委天命,	아서라, 버려두고 하늘의 명에 내맡겨보지만
悠悠安可任.	많은 근심을 어찌 견딜 수 있겠나.

이러한 운명을 천명이라 여기지만 하늘은 또한 나를 위로하지 못하네. 이 길로

78) 論曹植, <棄婦怨女詩>, 山東女子學院學報, 2011年 第1期, p55-56

오랜 슬픔과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리오. 라고 맺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그의 작품 중에 나타난 思婦의 形象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원정을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원망하는 여인의 고통은 曹植의 시에서 하나의 중요한 테마 요소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반적인 閨怨詩와 같지 않다. 이는 이미 가정문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다른 한 방면으로는 어렵고 힘든 당시 사회의 시대적 면모를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깊은 사회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아래에 소개된 詩歌의 내용 또한 나이 들어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녀자의 비통하고 처량한 신세를 잘 묘사하고 있다.

<種葛篇> 79)

種葛南山下,	취를 남산 아래에 심으니
葛藟自成陰.	취덩굴이 저절로 그늘을 이루었네.
與君初婚時,	그대와 처음 결혼했을 때는
結發恩意深.	부부 되어 사랑이 깊었네.
歡愛在枕席,	베개와 자리에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宿昔同衣衾.	아침저녁으로 옷과 이불을 같이 하였네.
竊慕棠棣篇,	남몰래 당채편의 내용을 부러워하니
好樂如瑟琴.	좋아하고 즐겁기가 금슬이 조화 이루듯이 한다고 했네.
行年將晚暮,	나이는 들어 점점 늙어 가는데
佳人懷異心.	어여쁜 님은 딴 마음을 품는구나.
恩絕曠不接,	사랑하는 정 떨어져 이어지지 않고
我情遂抑浸.	내 마음도 마침내 눌러 가라앉게 되었네.
出問當何顧,	대문을 나서게 되니 무얼 또 돌이켜 보랴만
徘徊步北林.	머뭇거리며 북쪽 숲을 거니네.
下有交頸獸,	아래엔 목을 서로 기댄 짐승이 있고
仰見雙栖禽.	위로는 짝지어 깃든 새가 보이네.

79)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74-276

攀枝長嘆息，	나뭇가지 붙잡고 길게 탄식하니
淚下沾羅衿。	눈물이 흘러내려 비단 옷깃 적시네.
良馬知我悲，	좋은 말도 나의 슬픔 아는지
延頸對我吟。	목을 뻗어 나를 보고 우는구나.
昔爲同池魚，	옛적엔 같은 연못 안의 물고기였는데
今爲商與參。	지금은 상성과 삼성같이 만나기 힘드네.
往古皆歡遇，	옛날부터 부부란 기쁘게 서로 만나거늘
我獨困于今。	지금은 나만 홀로 곤경에 처했네.
棄置委天命，	아서라, 버려두고 하늘의 명에 내맡겨보지만
悠悠安可任。	이 많은 근심을 어찌 견딜 수 있겠나.

버림받은 여인의 착잡하고 망연자실한 심경을 묘사한 “出問當何顧，徘徊步北.” 부분으로 신혼시절 “與君初婚時，結發恩義深” 같은 베개에 누워 사랑을 나누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늙어 결국에는 남편에게 무정하게도 버림받아 부부의 인연마저 끊겼으니 앞으로의 생활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몹시도 괴로워 북쪽 숲을 거닐며 방황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녀는 들짐승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들을 만지며 아픈 가슴 달래는데 어찌 슬퍼 눈물이 나지 않겠는가? 이 순간순간을 누가 이 아픈 심경을 알 수 있으리오? 숲속의 말만이 나의 심경을 아는 듯 목내밀어 그녀를 향해 울고 있구나. 라고 묘사 하고 있다. 옛날에는 서로를 좋아 하였으나 지금은 나 홀로 괴로워하며 남편에게 버림받아 나머지 삶을 하늘의 뜻에 맡겨도 버림받은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浮萍篇>⁸⁰⁾

浮萍寄清水。	부평초는 맑은 물에 기생하여
隨風東西流。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흘러 다니네.
結發辭嚴親。	머리 얹고 부모님께 하직하고

80)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76-278

來爲君子仇.	와서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지요.
恪勤在朝夕.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부지런히 일했건만
無端獲罪尤.	이유 없이 죄를 짓게 되었지요.
在昔蒙恩惠.	옛날에는 사랑을 받아
和樂如瑟琴.	둘 사이 화목하고 즐거웠지요.
何意今摧頹.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요. 지금은 깨어지고 부서져
曠若商與參.	상성과 삼성처럼 멀어졌지요.
茱萸自有芳.	수유도 그 자체에 향기가 있지만
不若桂與蘭.	계수나무와 난초만은 못하지요.
新人雖可愛.	새 사람은 비록 사랑스러워도
無若故所歡.	옛 사람의 기쁨만은 못하지요.
行雲有返期.	떠나는 구름은 돌아올 때가 있는데
君恩儻中還.	당신의 사랑도 혹시 중도에 돌아올까요.
慊慊仰天嘆.	원망스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노니
愁心將何愬.	근심스런 마음 장차 어디에다 하소연 할까요.
日月不恒處.	세월은 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人生忽若寓.	인생이란 잠시 머무는 나그네랍니다.
悲風來入懷.	슬픈 바람 불어와 휘장에 불어드니
淚下如垂露.	눈물이 이슬 떨어지듯 흘러내리네.
發篋造裳衣.	바느질 상자를 열어 새 옷 만들려고
裁縫紈與素.	흰 깁과 명주로 재봉을 하렵니다.

이 詩歌는 원래 남편과 서로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던 부인이 아무 이유 없이 버림을 받은 뒤의 슬픔과 원망을 노래하면서 남편이 다시 마음을 돌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작자가 이 棄婦詩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상의 불행한 처지를 寄託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¹⁾

이 詩歌의 처음 2구 “浮萍寄清水，隨風東西流”에서 “浮萍”의 形象은 <《楚辭》·九懷·昭世> 中에서 “哀竊今浮萍，泛淫今無根.” 보인다. 예부터 물위에서 뿌

81)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76

리가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도는 浮萍草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탄식으로 비유되곤 한다. ‘浮萍’은 우선 우리들로 하여금 심적인 공감을 자아내며 순식간에 時空의 경계를 뛰어 넘어 작품속의 여자와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는 듯하다.

結發辭嚴親.	머리 얹고 부모님께 하직하고
來爲君子仇.	와서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지요.
恪勤在朝夕.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부지런히 일했건만
無端獲罪尤.	이유 없이 죄를 짓게 되었지요.
在昔蒙恩惠.	옛날에는 사랑을 받아
和樂如瑟琴.	둘 사이 화목하고 즐거웠지요.
何意今摧頽.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요. 지금은 깨어지고 부서져
曠若商與參.	상성과 삼성처럼 멀어졌지요.

이 여덟 구에서 여자가 탄식하는 이유는 보기에 극히 평범한 것처럼 보인다. 이 詩歌는 깊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으며 자연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얇전한 젊은 여인이 친정 부모와 이별을 고하고 남편의 집으로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어진 아내가 되고자 매일 밤낮으로 남편을 섬기며 살았고 그때에는 남편과의 사랑도 깊어 더없는 사랑을 받으며 지냈다. 감미롭고 아름다운 신혼도 잠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식을 낳지 못한 죄로 달콤했던 생활은 한순간 몽땅 사라져 버렸다. “無端”의 의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슬퍼하는 중에서도 의연함이 묻어나며 예측하지 못한 현실상황에 괴로움이 점점 더해간다. “何意今摧頽” 이러한 심정 뒤에는 비통한 아픔이 숨겨져 있다. ‘摧頽’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때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좌절감이 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밤이 되어도 뒤척이며 심란하고 저미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옛날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기억들이 그녀를 더욱 더 괴롭게 한다. ‘何意’의 탄식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찌할 수 없는 비애의 심경이 함축되어 있겠는가?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한 여인이 통곡하며 호소하는 듯 하는 느낌보다는 그녀의 전후생활을 대비하여 서술하는 과정에서

맹도는 슬픔과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3. 思婦의 形象

曹植의 작품에 나타난 대부분 女性의 形象은 예외 없이 “不遇”의 신세로 묘사되어 있다. 曹植은 여자形象과 여자의 슬픔, 혹은 여자에게 흠모하는 심정을 통하여 이상추구의 열망을 표현하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인의 슬픈 처지를 비유하여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간접히 하소연하고 있으며 젊은 날의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 버린 슬픔과 아쉬운 감정을 걱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七哀詩>중의 여인은 달 밝은 밤 홀로 누각에 올라 집 떠난 지 십년이 지난 남편을 그리며 무한한 슬픔과 수없는 탄식,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픈 심경을 구슬프고 부드럽게 그려내고 있다.

<雜詩 其三>⁸²⁾

西北有織婦，	서북쪽에 베 짜는 아낙네 있는데
綺縞何繽紛！	짜놓은 비단 어찌 이리도 어지러운가.
明晨秉機杼，	이른 새벽에 베틀 북 잡고서
日昃不成文。	해 저물도록 무늬를 이루지 못했네.
太息終長夜，	큰 한숨으로 긴긴 밤을 지새우니
悲嘯入靑雲。	슬픈 한숨 소리는 푸른 구름까지 흘러드네.
妾身守空閨，	첩의 몸은 빈 안방을 지키고 있고
良人行從軍。	남은 전쟁터로 나갔네.
自期三年歸，	3년이면 돌아온다. 스스로 기약하더니.
今已歷九春。	이제 이미 3년도 지나갔네.
飛鳥繞樹翔，	나는 새도 빙빙 나무 돌아 날며

82)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167-168

嗷嗷鳴索群. 하악 하악 슬피 울며 무리를 찾는구나.
 愿爲南流景, 원컨대 남쪽으로 흘러가는 달빛이 되어
 馳光見我君. 빨리 달려가 내 님을 보고 싶네.

한 젊은 배 짜는 아낙네가 전쟁터로 나간 지 십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는 남편을 생각하며 손에는 배틀 북을 쥐고 사념에 잠겨있는 모습을 “日昃不成文”(해 저물도록 무늬를 이루지 못했네)라고 묘사하고 있다. “飛鳥繞樹翔，啾啾鳴索群”(나는 새도 빙빙 나무 돌아 날며, 하악 하악 슬피 울며 무리를 찾는구나.) 이 두 구절은 외로운 새 한마리가 나무주위를 돌며 무리를 찾는 모습에 의탁하여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비유하고 있고 간절히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愿爲南流景，馳光見我君.(원컨대 남쪽으로 흘러가는 달빛이 되어, 빨리 달려가 내 님을 보고 싶네.) 와 <七哀>中的 “愿爲西南風，長逝入君懷”와 표현수법이 같으며, 모두 다 끝없는 상상을 통하여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雜詩 其一>83)

高臺多悲風, 높은 누대에 슬픈 바람 잦고.
 朝日照北林. 아침 해는 북쪽 숲을 비추네.
 之子在萬里, 그 사람 만 리 밖에 있는데
 江湖迥且深. 강과 호수는 아득히 멀고도 깊네.
 方舟安可極, 큰 배로도 어찌 이를 수 있을까
 離思故難任! 이별의 시름 견디기 어렵네.
 孤雁飛南游, 외로운 기러기 날아 남쪽으로 가다가
 過庭長哀吟. 뜰을 지나며 길게 슬피 운다.
 翹思慕遠人, 머리 들어 멀리 계신 님 그리워하며
 愿欲托遺音. 기러기에게 부탁하여 내 소식 전하고 싶으나
 形影忽不見, 모습도 그림자도 홀연 보이지 않고

83)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165-166

翩翩傷我心.

훨훨 날아가 내 마음만 상하게 하네.

이 詩歌는 정감이 함축되어 있으면서 은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면과 회고의 대상은 없다. 高臺, 悲風, 江湖, 孤雁, 方舟 등 일련의 평범한 형상을 나열하여 가을날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경치에서 보이는 단순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실제로는 사물 각각의 나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曹植이 처한 위치가 곧 高臺이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심정은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기에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그리는 애절함과 안타까움은 더욱더 간절히 묻어나고 있는 것이다.

<情詩>84)

微陰翳陽景,
清風飄我衣.
游魚潛淥水,
翔鳥薄天飛.
眇眇客行士,
徭役不得歸.
始出嚴霜結,
今來白露晞.
游者嘆黍離,
處者歌式微.
慷慨對嘉賓,
淒愴內傷悲.

엷은 구름이 햇별을 덮고
맑은 바람은 내 옷을 불어 날리네.
노니는 물고기는 푸른 물에 잠겨 있고
빙빙 도는 새는 하늘 가까이 난다.
아득히 멀리 나그네는 길을 가며
부역을 하느라 돌아가지 못하네.
처음의 집을 나설 때는 된서리 끼었더니
오늘 오니 흰 이슬이 햇별에 말랐네.
나그네는 黍離 詩를 부르며 탄식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式微 詩를 노래하네.
비분강개하며 좋은 손님 대하니
서러움에 내 마음 아파오네.

“游者嘆黍離，處者歌式微” (나그네는 ‘서리(黍離)’詩歌를 읊으며 탄식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식미(式微)’詩歌를 노래하네.) “良人從軍行”、“悲嘆有餘哀” 남편은 원정을 떠난 지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어 홀로 슬퍼하며 눈물짓네. 비탄과

84)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18-219

슬픔에 젖은 부녀자로써 무거운 가사노동 일과 생활의 어려움을 홀로 책임지면서 독수공방 홀로 남편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린다. 이런 부류에 속한 작품에는 <七哀>, <閨情>, <雜詩 西北有織婦>등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七哀>시이다. 曹植은 <七哀>라는 제목을 빌어 고독하고 슬픈 자신의 신세를 노래하였고, 이것은 남편을 그리는 부인의 처량하고 슬픈 심경을 반영한 것으로써, 그는 이러한 여인의 가엾은 形象을 비유하여 자신의 우울한 정감을 발산하고 있다. <雜詩 西北有織婦>는 그 구성 과정이 <七哀>와 매우 흡사하다.

다음은 曹植의 작품 중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形象이 잘 묘사된 <七哀詩>를 살펴보기로 하자.

<七哀詩>⁸⁵⁾

明月照高樓,	밝은 달은 높은 누각을 비추며
流光正徘徊。	흐르는 빛은 배회하고 있네.
上有愁思婦,	누각위에 수심에 차 님 그리는 부인은
悲嘆有餘哀。	비탄 속에 슬픔이 끝없네.
借問嘆者誰,	탄식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云是宕子妻。	스스로 이르기를 길 떠난 이의 처라고 하네.
君行逾十年,	님 떠난 지 십년이 넘어
孤妾常獨栖。	외로운 소첩은 늘 홀로 지내왔어요.
君若淸路塵,	님이 만약 맑은 길의 먼지라면
妾若濁水泥。	소첩은 흐린 물속의 진흙이에요.
浮浸各異勢,	뜨고 가라앉고 각기 형편이 다르니
會合何時諧。	어느 때라야 만나 화합할 수 있을까요
願爲西南風,	원컨대 서남풍이 되어
長逝入君懷。	멀리 날아 임의 품에 들어갔으면
君懷良不開,	임의 품이 정녕 열리지 않는다면
賤妾當何依。	천첩은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요.

85)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p228-229

<七哀詩>에서는 한 부인이 집을 떠난 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하였다. 작자는 이 부인을 자신에 비유하여 曹丕와 형제 사이이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을 슬퍼하면서, 다시금 曹丕의 신임을 얻기를 희망하는 뜻을 담고 있다. ‘七哀’의 명칭과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원래는 일곱 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七哀’란 애통이 아주 많음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다. ‘七哀’라는 명칭은 대략 建安時期에 생겨난 듯하다. 王粲과 阮瑀 모두 七哀詩를 지었다.⁸⁶⁾

이 詩歌 속의 怨婦의 形象은 전통적인 閨怨詩에서 思婦의 形象과는 사뭇 다르다. 그녀는 애절하게 남편을 사모하고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한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신과 남편과의 현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曹植이 이 시기에 몸소 겪은 체험으로 볼 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작품속의 ‘怨婦’의 形象은 曹植 자신을 비유한 것이고 ‘夫君’은 曹丕를 비유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 曹植은 실제로 思婦의 形象을 빌어 思婦의 순탄치 않은 인생을 통해서 그 자신이 형인 曹丕와의 권력다툼에 밀려 소외당한 괴로움과 억압받는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劉履은 <選詩補注>에서 “<七哀詩>比也，子建與文帝同母骨肉，今乃浮浸異勢，不相親與，故特以孤妾自喻，而切切哀慮之也。”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淸路塵”와 “濁水泥” 각각 曹丕와 曹植을 가리키는 것으로 君臣간의 각기 다른 지위와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一浮一浸은 曹丕와 曹植의 지위상 현격한 차이와 거리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塵와 泥은 흙으로 비록 같은 부류이지만 一淸一濁의 서로 다른 환경과 처지인지라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달라서 서로 화합하여 살수 없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願爲西南風，長逝入君懷”은 曹植이 충심으로 임금을 섬기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솔직한 속마음일 것이다. “君懷良不開，賤妾當何依”은 바로 형인 曹丕의 박해와 시기를 받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詩歌는 표면적으로는 怨婦가 夫君을 그리워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曹植이 曹丕에게 간절히 바라며 갈구하는 듯 하며, 우리로 하여금 구슬프고 애잔한 느낌을 갖게 한다. 沈德潛 <古詩源>에서 말하기를 “<七哀詩>，此種大概思君之辭，絕無華飾，性情結撰，其品最工” <怨歌行>이외에도 曹植의 <閨情> 중의 思婦의 形象

86)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228

또한 寄託의 수법으로 그의 깊은 감개와 소망을 나타냈다.

<閨情> 또한 이런 종류의 詩歌 중에서 걸작으로 꼽힌다. 주인공은 먼 곳에 있는 佳人을 그리워한다. “憂戚與君并”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의 사랑이 변했지만 여자는 남편에 대한 충심과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남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심경을 “歡會難再逢”로 나타냈으며, 한편으로 그녀는 그리움과 괴로움으로 남편을 걱정하는 심경을 토로하였다. “人皆棄舊愛，君豈若平生。”(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옛정을 버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데 당신도 설마 영원히 변하지는 않겠지요.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남편이 타향에서 떠돌며 홀로 고독히 지내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남편이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 할까봐 걱정하는 심경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녀의 이런 복잡한 마음은 아주 정상적이고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그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남편에게 자신의 간절한 심경을 표현하였다. “寄松爲女羅，依水如浮萍。賈身奉衿帶，朝夕不墮傾。儻終顧盼恩，永副我中情。”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사모하고자 하는 심경을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심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어려운 사회 환경이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알 수 있다.

<閨情 其一>

攬衣出中閨，	옷을 잡고 일어나 방을 나서
逍遙步兩楹。	느린 걸음으로 두 기둥 사이를 걷는다.
閑房何寂寞，	빈방은 어찌 이리 적막한가!
綠草被階庭。	녹색 풀은 정원의 섬돌을 덮고 있다.
空室自生風，	문틈으로 바람이 절로 들어오고
百鳥翔南征。	많은 새들 남쪽으로 날아간다.
春思安可忘，	봄 되어 님 그리는 정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憂戚與我并。	근심하고 슬퍼하는 마음 그대와 똑같다오.
佳人在遠道，	님은 멀리에 있고

妾身獨單熒.	이 몸은 홀로 외롭네.
歡會難再遇,	기쁜 모임은 다시 만나기 어렵고
蘭芝不重榮.	자초와 난초는 두 번 꽃 피지 않는다오.
人皆棄舊愛,	사람들 모두 옛 사랑을 버리는데
君豈若平生?	그대는 예전과 같을까요.
寄松爲女羅,	나는 소나무에 붙어사는 여라 같은 신세고
依水如浮萍.	물에 의지하는 부평초 같아요.
束身奉衿帶,	그대에게 몸을 맡겨 옷 입고 허리띠 매는 일 시중들며
朝夕不墮傾.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을리 하지 않으리다.
倘願終盼眇,	그대 만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면
永副我中情.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가장 잘 맞을 거예요.

이 작품은 규방의 부인을 노래하고 있으며, 멀리 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정을 노래하는 모습을 읊고 있다.

黃初三年(222-224) 曹植이 東阿王으로 봉해진 후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서 슬픔과 고뇌로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시기로 추정된다.⁸⁷⁾ 그는 늘 魚山에 올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 마흔 하나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해에 쓰여진 작품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그는 思婦의 形象을 빌어 경성에서 어렸을 적 생활의 회고와 明帝가 자기를 중용해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曹植의 後期 詩歌中에는 ‘思婦’의 形象으로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明帝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고 중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서 ‘棄婦’의 形象으로 비유한 것과 커다란 차이가 보인다. 대부분은 曹植 자신에게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원망과 슬픔으로 토로 하고, 자신의 신의와 충정을 알아주지 않은데서 오는 불만과 분노를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浮萍篇>, <種葛篇>에서의 ‘棄婦’의 形象으로 시인 자신의 처지를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어서다.

비록 원망의 감정으로 토로하고는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87) 이치수·박세욱 옮김, 《조자건집》, 소명출판, 2010.10, p165

중국 고대 文人들처럼 스스로 절제된 심미적 추구를 표방하였으며, 《詩經》의 “怨而不怒”의 傳統을 계승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함축적인 예술적 효과를 구현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여인의 미모와 웅장하고 힘찬 풍격으로 詩歌의 예술적 경지를 개척하였다.

VI. 結 論

曹植의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는 역시 詩歌이다. 曹植의 詩歌는 《詩經》과 《楚辭》의 전통을 골고루 계승하고 兩漢의 민가와 五言詩로부터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취함으로써 中國詩歌 발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성취는 兩漢과 南北朝에서 唐代에 이르는 중국詩歌 발전사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가 남긴 80여 편의 詩歌作品 중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에는 여인 形象이 색다르게 연이어 나타난다. 曹植은 여인형상과 여인의 슬픔, 혹은 여인에게 흠모하는 심정을 통하여 이상추구에 열망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인의 슬픈 처지를 비유하여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간접히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제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고, 풍부하고 심미적인 깊은 含意를 지니고 있다. 女性을 주제로 한 曹植의 작품을 內容上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⁸⁸⁾

첫째는 성년이 되어도 시집못간 여인의 슬픔 <美女篇>, <雜詩 南國有佳人> 등 둘째는 시집은 갔으나 홀로 독수공방하는 여인네의 슬픔<七哀詩>, <雜詩 西北有織婦>, <閨情 一> 셋째는 시집가서 아이를 갖지 못해 버림받은 여인의 슬픔을 <棄婦篇>, <出婦賦>, <浮萍篇>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성년이 되어도 시집 못간 여인의 슬픔을 반영한 전형적인 작품인 <美女篇>에서 曹植의 작품 중에 등장하는 여인은 용모가 출중하고 재능이 넘치는 形象과 홀로 깊은 규중에 기거하는 여인네의 슬픈 形象과 서로 모순되는 구성은 일종의 깊은 애처로운 美로 다가온다.

曹植의 작품 중에는 美女의 형상을 묘사한 양가집의 아리따운 딸의 아름다움에서부터 남몰래 한숨 지며 청춘을 보내버린 여인의 슬픈 모습이나, 마치 복숭아꽃처럼 예쁜 남국의 미인, 인생의 중년기에 버림받은 여인네의 형상, 바라볼 수는 없되 이를 수 없는 洛水女神의 슬프고 애처로운 여인 道殊의 형상, 남편의 충애를 잃고 가슴속에 한 맺힌 여인의 형상, 오직 남편이 마음을 돌이키기만을 바라는 思婦의 형상 등 이러한 여인들의 각각의 모습들을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88) 裴登峰.張音, 〈曹植作品中女性美的象征意義〉, 青海民族學院學報, 1994年 第4期, pp59-60.

통해서 작품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曹植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美女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객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초적인 자연스런 아름다움과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란 주로 시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의 자태나 용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용모 방면은 피부나 수려한 머리카락, 하얀 이, 눈썹 등이 직접적으로 눈에 비치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美女가 본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거나 모종의 審美的인 속성을 타고 났거나 잠재적 기질을 타고 났는지 모른다. 曹植은 美女의 아름다운 형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審美的인 희열감을 느꼈을 것이며 또한 자아실현의 기쁨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曹植은 자신을 여인에 비유하여 총애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여인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曹植은 여인들을 통하여 삶의 고통에 대한 발산과 보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曹植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본시 선천적인 미인일 뿐 아니라 내적인 우아한 기품과 생동감이 넘치며 게다가 인간미가 돋보이는 여인들로서 다른 작품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建安時期에는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다수 출현하게 되는데, 그 흥성 원인으로서는 漢代에 유행했던 經學의 쇠퇴로 인한 사상의 해방에서 文人들은 자유롭게 남녀지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소재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동정심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당시 불행한 처지의 女性들이 文人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詩文 창작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女性관에 대한 변화와 女性의 사회적 지위의 개선으로 인해 文人들은 여인들을 찬미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女性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당시 사회적 변화와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文人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발전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여인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曹植은 여인들을 통하여 삶의 고통에 대한 발산과 보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종합해 보면 曹植의 작품 중에서 여인의 형상은 外的, 內的인 美를 모두 겸비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비극적 운명이다. 재능이 출중하고 운치가 있고 호방하나 그에 맞는 포부와 재능을 펼칠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을 맺는다.

參考 文獻

單行本

- 이치수. 박세욱 옮김, 《曹子建集》, 소명출판, 2010
- 이종진 편저, 《曹植詩選》, 문이재, 2002
- 허세욱, 《中國古代文學史》, 법문사. 1986
- 孫明君, 《三曹詩選》, 北京中華書局, 2007
- 趙幼文, 《曹植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1984
- 馬茂元, 《古詩十九首初探》, 西安陝西人民出版社, 1981
- 馬茂元, 《古詩十九首初探》, 西安陝西人民出版社, 1981
- 趙幼文校注, 《曹植集校注》,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 木齋, 《古詩十九首 建安詩歌 研究》, 北京人民出版社. 2009
- 邱英生. 高爽, 《三曹詩譯釋》, 哈爾濱黑龍江人民文學出版社, 1982
- 李寶均, 《曹氏父子和建安文學》, 上海古籍出版社. 1978
- 河北師範學院中文系古典文學教研組編, 《三曹資料匯編》, 北京中華書局, 2004
- 章培恒. 駱玉明, 《中國文學史》, 上海復旦大學出版社, 2000

論文類

- 王曉輝, 《淺談曹植婦女題材詩歌的比興寄托》, 黑龍江農墾師專學報, 2003年 第2期
- 《曹植婦女題材詩歌評析》, 蘇州大學學報, 1996年 第4期
- 愛德華.泰勒, 《原始文化》, 連樹聲譯, 上海文藝出版社, 1992
- 何星亮, 《中國圖騰文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 曹植著, 《曹植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1984
- 郭紹虞, 《中國歷代文論選》, 上海古籍出版社, 2001
- 王貴生, 《詩經 比興形象生成機制及其文化內蘊》, 西北師大學報, 1996
- 封如樓, 《曹植婦女題材詩歌評析》, 蘇州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96
- 《淺論文人閨怨詩與感懷不遇詩的合流》, 焦作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5
- 孫綠江, 《曹植筆下女性形象的文化意義》, 社科縱橫, 2000

<曹植 年譜>

-漢 獻帝 初平 3년(192)

192: 1세 출생, 당시 曹丕는 6세.

-漢 獻帝 興平 2년(195)

195: 4세 이복동생 曹彪 출생

-漢 獻帝 建安 (196~219)

196: 5세 친어머니 邊氏가 정실부인이 됨.

197: 6세 큰형 曹昂이 張繡에게 살해됨. 9월 曹操가 원술을 공격하여 승리함.

202: 11세 詩, 辭, 賦 10만 자를 외움.

204: 13세 曹丕가 甄氏의 아내 견씨를 자신의 소유로 함.

205: 14세 鄴땅으로 이사 간 것으로 추정됨.

206: 15세 甄氏가 曹叡를 낳음.

210: 9세 鄴에 동작대를 세움. 曹操가 여러 자식을 다 데리고 동작대에서 각각 시를 짓게 하자 曹植이 즉시 시를 써냈는데 매우 불만하여 曹操가 기특하게 여김.

211: 20세 平原侯에 봉해짐. 曹操를 따라 서쪽으로 마초를 정벌하러 가서 관중으로 들어갔고 또 북쪽으로 양추를 정벌하러 가서 안정까지 감. <公燕>, <송응씨>, <증정의 왕찬>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임.

214: 23세 임치 후로 봉해짐. 조조가 손권을 공격하러 가면서 曹植을 유수로 명하여 업을 지키게 함. 이때 정의, 정익 등과 가까이 사귀. 2~3년 후에 曹丕와 왕위를 다툼.

215: 24세 <증왕찬>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됨.

216: 25세 <증서간>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됨. <여양덕 조서>를 씀.

217: 26세 10월에 曹丕가 태자가 됨. 이 무렵부터 방자한 행위가 날로 더해가고 曹操의 총애는 점차 사라짐. 왕찬, 서간, 진림, 응창, 유정이 모두 죽음.

219: 28세 조조가 曹植을 남중랑장으로 임명함. 가을에 측근 양수가 피살되자 불안이 날로 더해짐. <공후인>, <백마편>, <명도편>, <해로행>, <미녀편>을 지음.

220: 29세 曹操가 66세로 사망.

-魏 文帝 黃初 (220~226)

- 220: 29세 10월에 曹丕가 왕위를 계승함. 11월에 정의, 정익이 피살됨. 이후 曹植과 여러 제후들은 각각 봉지로 떠남.
- 221: 30세 안향후로 좌천됨. 이 때 참소를 받아 낙양으로 감.
- 222: 31세 4월 식읍 3천5백호의 견성 왕이 됨. 낙양으로 조회하러 감.
- 223: 32세 둘째 형 조창이 6월에 낙양에서 급사함. 정월에 낙양에서 조회하고 7월에 견성으로 돌아감. 7월 후에 옹구 왕으로 봉해진 것으로 보여 짐. <증백마왕표>를 지음.
- 225: 34세 12월에 曹丕가 원정 갔다 돌아오는 도중에 옹구에 들러 曹植을 만나고 식읍 5백호를 더 내려줌.
- 226: 35세 4월에 曹丕가 병이 나 5월에 46세로 사망함. 태자 曹叡가 왕위에 오름. <삼양시>,<종갈편>,<당장육고행>을 지음.

-魏 明帝 太和 (227~232)

- 227: 36세 봉토가 중의로 바뀜. <투계>를 지음.
- 228: 37세 다시 옹구로 봉토가 바뀜. 明帝인 曹叡가 촉 땅이 압력을 받아 장안으로 행차했다가 4월에 낙양으로 돌아옴. 행차 중에 明帝가 죽었다는 말이 나돌아 여러 신하들이 曹植을 옹립하자는 의견 <구자시표>, <희우> 지음.
- 229: 38세 12월에 동아 왕으로 봉해짐.
- 230: 39세 어머니 邊氏가 죽음.
- 231: 40세 황족간의 교제가 부자유스러워 서로 소원함을 근심 <구통친친표>를 올림,
- 232: 41세 정월 여러 제후가 낙양에서 조회함. 2월에 진왕으로 봉해줄 것을 요구함. 11월에 사망함. 시호를 쓰라 함. 아들 曹志가 그 뒤를 이음.
<우차편>,<하선편>을 지은 것으로 추정됨